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신문방송학석사 학위논문

한 · 중 인터넷 통신언어 문화의 비교 연구



2009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신 문 방 송 학 과

SONG DA PING

신문방송학석사 학위논문

한 · 중 인터넷 통신언어 문화의 비교 연구

지도교수 오 창 호

이 논문을 신문방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2월 일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신 문 방 송 학 과

SONG DA PING

**SONG DA PING의 신문방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9년 2월 25일



주심 문학박사 이 상 기 (인)

위원 문학박사 오 창 호 (인)

위원 철학박사 김 무 규 (인)

목 차

I 서론	1
1. 문제의 제기	1
2. 연구문제 및 연구 방법	5
II 관련 문헌 연구 및 이론적 고찰	8
1. 인터넷 통신언어의 개념 및 일반적 특성	8
2. 한중 인터넷 통신언어의 공통적 특징	13
1) 인터넷 통신언어 어휘적 특징	16
(1) 약어와 의미가 변형된 단어의 사용	16
(2) 합성법(合成法)	17
(3) 생략법	18
(4) 영어를 차용하여 생략하는 방식	19
(5) 의미변형	19
2) 통신언어에서 기호 사용	23
(1) 숫자 기호의 회의와 연상	23
(2) 문자와 기호의 혼용	25
(3) 도형 기호류- 표정 문자(이모티콘)	26
3. 한중 인터넷 통신언어의 차별적 특징	27
1) 한국 인터넷 통신언어 현상의 분석	27
(1) 통신언어의 음운론적 특징	27
① 소리대로 적기	28
② 한국어 자모음의 대치	30

③ 형태변이	31
(2) 소결	41
2) 중국 인터넷 통신언어 현상의 분석	44
(1) 영어 해음	50
(2) 중국어 해음	50
(3) 숫자 해음	55
(4) 혼합 해음	57
(5) 방언 해음	58
(6) 축약어	59
① 영어 단어를 자모로 축약	60
② 중국어 문장을 단어로 축약	61
③ 호칭 및 명사성 단어 변이	63
(7) 직접 한어 병음을 사용하는 방법	65
(8) 기호를 이용한 글쓰기	66
III 인터넷 통신언어에서의 어법파괴 원인	69
1. 경제적 원인	69
2. 사회적인 원인 및 오락적 동기	70
3. 심리적 해방 동기	71
1) 개성화를 추구하는 심리	71
2) 심리적 원인	72
4. 또래 집단 간의 폐쇄성과 언어의 카타르시스	73
5. 유대 강화의 동기	74

IV 결론	75
참고 문헌	83



표 목 차

<표 1> 음절 생략의 예(한 음절로 축약된 경우)	32
<표 2> 음절 생략의 예(단어에서 음절 일부가 생략된 경우)	32
<표 3> 음절 생략의 예(앞 음절만 이용한 축약)	33
<표 4> 음절 생략의 예(단어의 앞 음절, 뒤 음절을 사용한 예) ..	33
<표 5> 음절 생략의 예(동일한 형식으로 생략된 예)	34
<표 6> 음절 생략의 예(모음대해)	35
<표 7> 음절과 음소가 동시에 생략된 예	36
<표 8> 음소가 참가되거나 변이된 예	38
<표 9> 동일한 형식으로 변이된 예	40

A study of the comparity of the Network Language
Culture between Chinese and Korean

SONG DA PING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appearance of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network technology and tremendous changes of human being's communication way change the distance between people, at the same time they also make it possible for people by using computers and the Internet to convey their moods, feelings, expressions and so on and even more therefore enjoy the convenience and pleasure brought by network technology. With the rapid growth of the population of internet users around the world, the network language irresistibly formed and spread rapidly through the network. At the beginning of human language history, language are composed by sound language and written language, but the main form of network language are written language, symbols, and numbers and so on. Because of it's concise form, mass arbitrary, and happy way of the psychological release, the network langage has become an important communications tool used by more and more net citizens. In human history, the rise of every culture

in the world will make some new vocabularies come into existence, but it is stunning that network language has such an amazing development speed, such a huge scale usage and such a large quantity. Today, the network language has become a tool of network communication and surpassed the bond of internet, and it has gradually become a social phenomenon and cultural phenomena.

China and Korea both belong to Chinese cultural circle and these two countries have many similarities on language and culture. In the past scholars had done many comparative study on chinese language and Korean language, however, these study were only one - sided and not concentrated.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the network languages of China and Korea and of course, meanwhile, there are some similarities. This thesis mainly compared and analyzed the features of Chinese network and Korean network language from abbreviations, homophony, voice features and lexical features, and even more pointed ou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Chinese network language and Korean network language and discussed various reasons of the appearance of network language.

In this paper, the concept of 'network language' is a new thing. Although Chinese and Korean scholars have done a good deal of study on their own domestic network languages, there are few Substantive comparison study on these two countries network language. So there were few research accomplishments that I could consult when I was writing this paper. Surely, there would be insufficient in my paper, but I hope that this paper could be able to provide some valuable things

for later network language comparative study.

Key words:

Network Language, Characteristics of chinese network language,
Characteristics of Korean network language, Applications of symbols,
Homophony, Comparison of Network Languages .



I. 서론

1. 문제의 제기

최근 새로운 전자매체가 등장하면서 그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언어 이용 습관이 크게 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인쇄매체 환경에서 사람들은 말과 글을 분명히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나 전자매체 환경에서는 그러한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다. 전자매체가 언어 사용의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제거하면서 전자매체 공간에서 이용자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 예컨대 전자매체 환경 속에서 이용자들은 거의 즉각적으로 서로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공간적으로도 메시지의 길이를 줄이고 늘이는 것이 아무런 제한 없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인터넷 통신언어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말(orality)과 글(literacy)의 혼합현상이다.

일반적으로 말은 시간 구속적이다. 말은 시간을 통해 존재하며, 사라지면서 존재할 수 있을 뿐이다. 발언의 전부 또는 낱말의 전부조차 한꺼번에 존재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직접 얼굴을 맞대는 구술 미디어로서의 말은 또한 공간 구속적이다. 말은 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화의 상대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공간적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 말은 상대방이 있어야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화자와 청자가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한다는 공간적 맥락을 벗어나면 의미를 잃게 된다. 따라서 말은 과거나 미래보다는 현재적 실재와 연관되어 있고, 구술적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지금, 공간적으로 여기'라는 전통적인 발화의 특성을 지니게 된다.

반면 글은 말의 시간적 차원과 공간적 차원을 제거해 버린다. 말을 문자

로 고정시킴으로써 말의 구체적 요소를 삭제해버리고 그것을 하나의 추상적 기호로 바꾸어 놓았다. 추상적 기호로서의 문자는 그것이 지시하는 특정한 의미를 요구하게 되는 데 그것이 바로 개념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문자에 바탕을 둔 수사는 내용을 가지게 되는데, 그 내용은 속뜻이 있고 의역이 가능하며 어떤 주장을 담게 된다. 문자가 커뮤니케이션의 주된 매체일 때 - 특히 문자가 인쇄의 엄정성에 의해 통제될 때 - 아이디어, 사실, 주장은 불가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만일 문자로 이루어진 문장이 어떤 사실, 간청, 질문, 주장, 설명 따위를 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단순한 문법적 껍데기에 불과한 넌센스일 따름이다.

그런데,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이 대중화 되면서 출현한 인터넷 통신언어는 이러한 구분을 뛰어넘는다. 인터넷 통신언어에 대해 연구했던 이정복(2003)에 따르면, 통신 언어는 '익명성과 비대면성', '양방향성', '빠른 전달성과 즉시성', '대중성과 개방성'의 환경적 특성을 배경으로 하여 '어문 규정에서 벗어난 글쓰기', '은어와 비속어를 많이 씀',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씀', '방언형을 많이 씀',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언어 사용'의 특징을 보인다고 한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면에서 일상어와 다른 통신 언어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통신언어가 언어를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혹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통신언어를 자유롭고 창조적인 언어의 사용이라며 권장하기도 하며, 또 다른 입장의 사람들은 새로운 사회 방언의 등장으로 보았다.

통신언어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소리 나는 대로 적기'이다. 예컨대, "생일을 **추카**하는 의미에서 한턱 내마", "사람들 진짜 **만타**", "**선배한테 두잘허구 동기들하구두** 친하게 **지내구** 그러셔요" 따위가 그러한 사례들이다. 또한 통신언어의 또 다른 특징은 각종 기호나 글자를 이용해서 문장을 시각화하는 표현 방식이 있다. 예컨대, "잘 지내라. / *^^*", "1주일을 기

다렸습니다. П.П”, “깊이 반성해야지...ioi <- 손들구 벌서는 중.... 우
웅~~~” 따위가 그러한 사례들이다.

이러한 통신언어의 특징은 원래 소리글자인 한글이 표준어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음운규칙을 파괴하여 더욱 자연스럽게 원 소리에 충실하
게 표기하려는 경향으로 보인다. 반면 각종 기호나 글자를 이용하여 문장
을 시각화하려는 경향은 소리글자인 한글에 상형적 요소를 가미하고자 하
는 영상세대의 취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말과
글의 구분을 허물고 한편으로는 글을 말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말을 글로
전환시키는 영상전자매체 시대의 이용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본 논문이 인터넷 통신언어 사용에서 한글과 비교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언어인 중국어는 기본적으로 뜻글자로서 소리글자인 한국어와 비교된
다. 중국어는 그 기원에 따라 가차문자(假借文字), 상형문자(象形文字), 회
의문자(會意文字), 지사문자(指事文字)¹⁾, 형성문자(形聲文字), 전주문자(轉注
文字)²⁾ 등으로 이루어진 기본적으로 표의문자(表意文字)이다. 이러한 표의
문자를 쓰는 중국인들이 전자매체 환경에서 어떻게 통신 언어를 쓰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많은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통신언어는 독특한 매력을 가
지고 있다. 최근의 인터뷰에서 한 대학생은 통신언어는 일종의 문화형태라
고 표현했다. 통신언어에서 "편쓰(粉絲.스타가수의 팬), PK(player killed.탈
락), 콩롱(恐龍.추녀)..."와 같은 용어들이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통신언어

1) 지사문자 : 추상적인 뜻을 점이나 선으로 표시 위치나 동작, 마음속의 생각이나 뜻 등 보이지 않는 개념의 경우는 본뜬 대
상이 없으므로 다른 원리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글자들 중의 어떤 것들은 일정한 선과 점으로 그러한 뜻을 표시하여 글자
를 만들었다. 이러한 원리를 指事(지사)라고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를 指事詞(지사사)라고 한다.

2) 전주문자 :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가지고 유추하여 다른 뜻을 끌어낸
轉注(전주)에 대하여는 아직 정해진 학설이 없다. 하나의 글자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에서 갈라져 나온 새로운
뜻을 전주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한자의 3요소 型, 音, 意 중, 형태는 놓아두고 '音'과 '意'만을 만들어
쓰는 글자의 운용 방식을 '전주'라고 한다.

는 착상이 발달하고 젊은 계층의 개성이 담긴 유행어이기 때문에 젊은 감각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크다. 요즘은 SL(色狼.호색한), SP(support.支持)처럼 중문 또는 영문 발음을 딴 축약어가 유행이다. 또 장츠(醬紫.이처럼), 커우넨(口年.측은한)등 한자의 일반 조어법을 무시한 채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단어가 인기다. ‘남편’을 뜻하는 ‘라오궁(老公Laogong)’을 중국 변음의 앞글자를 따‘LG’로 ‘형’인 ‘거거(哥哥 GeGe)’는 ‘GG’, ‘나’의 ‘워(我w o)’는 ‘어우(偶)’, ‘화 났나’는 뜻의 ‘치스워러(气死我了)’는 발음이 비슷한 숫자인 ‘7456’, ‘그래 그거야’라는 뜻의 ‘쥬스쥬스(就是就是)’는 ‘9494’, ‘물건’을 뜻하는 ‘동시(東西, 물건)’는 ‘동동(東東)’등으로 표기도 한다. 편리를 위하여 인터넷상 "Bye bye" 는 보통 숫자"88" 로 대체하며 시간이 갈수록 일반화 되고 있다. 또한 많은 통신언어 그 자체가 자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fresh fish(菜鳥)’ , ‘공룡(恐龍.추녀)’ 은 단도직입 (單刀直入) 적으로 "너 진짜 형편 없구나" 와 "너 진짜 폭탄이다" 하고 말하기 보다 더 형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국 네티즌이 쓰는 방가(반가워요), 추카(축하해요), 강(그냥)과 같은 조어 방식이다. 분명히 인터넷은 상대적으로 자유스러운 가상공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규범화 하려고 하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이라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우리의 언어체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통신언어에서 나타나는 말과 글의 구분 파괴현상과 그것의 사회적, 심리적 의미를 살펴보고, 이러한 현상이 표음문자인 한국어와 표의문자인 중국어에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 지 비교해 보는 것이다. 또한 나아가서 한국어의 표음 요소의 파괴현상과 중국어의 표의 요소의 파괴현상을 통해서 그 뿌리가 서로 다른 두 언어가 전자매체 환경에서 어떻게 수렴 혹은 발산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2.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오늘날 한국이나 중국에서 컴퓨터 통신은 직접대화보다 더 넓은(시간적, 공간적) 대화의 수단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컴퓨터의 활용으로 인터넷 사용이 대중화되고 사용자의 대부분 대화방이나 게시판 등의 공간을 이용하면서, 이제 컴퓨터 통신은 젊은 층은 물론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공간이 되었다. 즉, 컴퓨터를 이용한 채팅(chatting)은 사이버 공간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통신언어는 방송 언어나 신문지상에 사용되는 언어 못지않게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엄연히 현대 문화를 대표하는 차세대 전통으로 자리매김 할 통신언어를 분석한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인터넷 통신에 따른 한국어와 중국어의 변화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한국과 중국은 이웃으로서 문화교류에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양국 국민들은 상호 학습하고 도우면서 위대한 문화유산을 창조하였다.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적 배경에서 볼 때 양국 국민은 특별한 친밀감이 있으며 기타 지역 국가보다 서로 더 쉽게 이해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다. 양국 국민은 인터넷을 통하여 언어장해를 제거하는 동시에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다. 또한 한중 양국의 언어가 음운상, 표기상 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사용하는 한자의 의미와 중국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며, 교류와 통신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공통점도 많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흔히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정신세계를 담고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이 설득력 있는 가정을 담고 있다면, 오늘날 한중 인터넷 통신언어에 나타나는 공통적 특징과 그 인터넷 통신언어를 사용하는 양국 젊은이

들의 정신세계는 많은 공통점을 지닐 것이다. 본 논문은 한중인터넷 통신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가운데 양국 국민의 교류 가능성과 그 한계를 살펴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어와 중국어의 언어학적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인터넷 미디어의 등장에 따른 한중 인터넷 통신언어의 공통적 특징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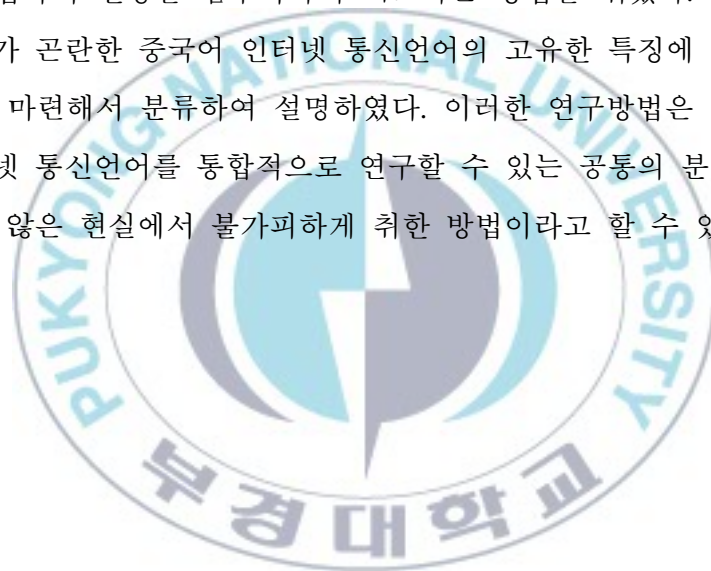
셋째, 인터넷 미디어의 등장에 따른 한중 인터넷 통신언어의 차별적 특징은 무엇인가?

넷째, 인터넷 통신언어에서의 어법과 표현의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연구대상으로는 컴퓨터통신 의사소통수단 중 주로 채팅, 게시판의 글 등을 위주로 조사 하였다. 중국의 경우에는 주로 QQ와 MSN, 한국의 경우에는 주로 네이트와 사이월드를 대상으로 조사 하였으며, 기존에 한국어와 중국어 분야에서 이루어진 인터넷 통신언어에 대한 연구논문에서 사례로 제시되는 통신언어를 포함시켰다. 컴퓨터통신 의사소통수단 중 주로 채팅, 게시판의 글 등을 위주로 조사 하였으며, 인적 연구 대상으로는 한중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의 사용추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컴퓨터 통신활동이 활발하고 새로운 언어문화를 창조하는 젊은 층 (10대 후반 - 20대 초반)을 선정하였다. 또 연구 방법으로 기존의 한국어와 중국어 채팅언어 분석에 관한 한중 인터넷 통신언어가 편리성에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하여 비교 연구했다. 여기서 사용상의 편리성은 주로 앞서 열거한 3가지 종류와 인터넷언어가 형성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교류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 다른 관점에서, 한

국과 중국의 인터넷 통신언어의 표현성으로 보면 한국어는 표음문자(表音文字) 3), 중국어는 표의문자(表意文字) 4)로서 그들은 인터넷 통신언어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인터넷 통신언어상 음성언어(口語) 5)와 문자언어(文語) 6)의 혼용은 한국과 중국에서 여러 방면에서 구분이 있다. 그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연구방법으로는 기존 한국어 인터넷 통신언어에 대한 연구결과로 제시된 인터넷 통신언어의 어법과괴 현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중국어 인터넷 통신언어의 어법과괴 현상을 범주화하여 비교하는 방법을 취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주화가 곤란한 중국어 인터넷 통신언어의 고유한 특징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을 마련해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한국어와 중국어 인터넷 통신언어를 통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공통의 분석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불가피하게 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 3) 표의문자(表意文字) 하나하나의 글자가 언어의 음과 상관없이 일정한 뜻을 나타내는 문자. 중국 고대의 회화 문자나 상형문자가 발달한 것으로 한자(漢字)가 대표적이다. 표의문자는 다른 문자의 소리를 빌려서 쓰기도 하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문자에 점 등을 첨가하여 별개의 의미나 별개의 소리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표의문자는 형태가 분명한 대상들은 표현하기가 쉬웠지만, 추상적인 대상이나 개념들은 표현하기가 어렵다.
- 4) 표음문자(表音文字) 말소리를 그대로 기호로 나타낸 문자. 한글, 로마자, 아라비아 문자 따위 등이 있다. 표음문자인 한글에서 'ㅂ'이나 'ㄷ', 'ㄹ'과 같은 각각의 문자는 어떠한 의미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이들이 결합하여 '불'이라는 단어를 형성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 영어는 불과 26개의 알파벳을 문자로 가지고 있지만, 이를 조합하여 무한개의 단어를 만들 수 있다.
- 5) 음성 언어 (말하기, 듣기).
 * 뜻 : 입을 통해 표현되고, 귀로 들어 의사소통을 하는 언어.
 * 장점 : 쉽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음.
 * 단점 : 말함과 동시에 금방 사라져 오래 보존할 수 없음.
- 6) 문자 언어 (읽기, 쓰기).
 * 뜻 : 음성 언어에 담긴 내용을 상징하는 부호, 즉 문자로 나타낸 언어.
 * 장점 :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오래도록 전달됨.
 * 단점 : 억양, 톤, 감정 등을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

II. 관련 문헌 연구 및 이론적 고찰

1. 인터넷 통신언어의 개념 및 일반적 특성

언어는 각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문화와 생각을 나타낸다. 한국이 조선 시대의 언어를 지금까지 구사하고 있지 않듯이, 언어는 새로운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계속해서 변형되기도 한다. 특히 오늘날 중국은 개혁이 심화되고 개방이 확대된 시기에 놓여 있는데, 서양의 정보 기술을 기초로 한 정보 혁명의 물결이 중국 사회의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6년 1월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수가 1억 2,300만 명을 넘음으로써, 중국은 인터넷에 접속하는 네티즌 수에 있어서 세계 제2위를 차지하는 인터넷 대국이 되었다. 물론 인구 대비 보급률이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온라인 콘텐츠 등에서는 아직 인터넷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편리한 멀티미디어 매체로서의 인터넷은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다양한 사회적 의사소통을 위해 생활 속에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주요 사용자인 청소년들은 창조성(創新)을 중시하고 전통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 어법이나 의미 규범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어를 끊임없이 창조해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반전통적인 포스터 모더니즘의 특성을 지닌 인터넷 문화 및 인터넷 통신언어에서 형식상으로는 전통을 부정하고 비판하여 초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중국인들의 전통사상, 민족심리와 여전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왜냐 하면 인터넷 통신 문화는 특수하고 구체적인 문화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므로, 민족을 초월한 동일한 인터넷 문화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특성을

7) CNNIC(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에서 2006년 2월에 발표한 <中國互聯網絡發展狀況統計報告>참조

많이 내포하고 있을수록 진정한 의미의 '세계적 인터넷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터넷 신조어 중의 해음어⁸⁾의 기반이 된 중국인들의 해음문화, 축약어의 기반이 된 중국어 단어의 축약현상, 숫자·기호에 의미를 부여하는 숫자문화, 중국인들 고유의 해학과 유머·감각 등의 민족적 특성은 중국 인터넷 통신언어의 현상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 통신언어는 컴퓨터와 전자 통신을 결합한 새로운 의사소통경로이자 수단인 '컴퓨터 통신망'(PC Networks)과 그것의 확대·결합 형식인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다만 인터넷이 1990년 중반 이후 급속하게 확산되고 사용 방법이 편리해지면서 회원 중심의 폐쇄적 통신망이 점차 인터넷으로 통합되어 감으로써 지금은 두 가지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가 통신언어의 개념 정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이정복, 2003, 16-17) 다시 말하면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문화를 발전시켜온 원동력이다. 새로운 언어시대로 진입하면서 인류 사회 역사를 갖게 되었는데, 구술에 이어 문자가 발명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현대 문명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와 같이 문자는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에 이어 정보혁명이라는 새로운 문명의 장을 열게 해주었는데, 그 결정적인 매개체는 중국의 인쇄술 발명 이후 최고의 발명품이라 할 수 있는 컴퓨터이다. 컴퓨터의 등장으로 좀 더 손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이용의 편리함 때문에 처음에는 주로 전문적인 분야에서 사용되던 것이 점차 일상생활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관련 기술도 급속히 진보하게 되었

8) 해음(諧音)현상: 중국어 수사적 특징을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해음현상이다. 특히 중국인의 생활 풍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음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해음이란 서로 의미는 다르지만 소리가 비슷한 두 글자 A와 B가 있을 때, A를 말함으로써 동시에 B의 이미지를 연상하게 만드는 수사법을 말한다. 이처럼 서로 다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발음을 가지면 연상 작용에 의해서 원래의 의미와는 다른 대상을 머리속에 떠올리는 방식은 중국인의 오래된 습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중국인은 언어를 구사할 때 특히 선호하는 단어가 있거나 반대로 금기하는 단어가 생기기 마련이다.

다. 진보된 컴퓨터는 이제 컴퓨터 통신망이며,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언어가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컴퓨터 고유의 공간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컴퓨터 통신망이며,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언어가 인터넷 통신언어이다. 처음에 이것은 '컴퓨터 매개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CMC: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에서 쓰이는 말'이라는 의미의 '컴퓨터 통신언어'로 이해되어져 왔는데,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컴퓨터 통신망이 인터넷으로 통합되어 감으로써 의미가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에, '컴퓨터 통신언어' 대신 인터넷 통신언어 (ICL: Interner Communication Language, 網絡語言)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통신언어는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개념으로 정의되는데, 요약하자면 광의의 의미는 '컴퓨터 통신에서 사용하는 모든 관련 용어 및 언어'를, 협의의 의미는 '통신의 기본 개념인 채팅에서 사용하는 문자 대화'를 뜻한다.(권연진 1998:259)

인터넷 통신언어는 인터넷 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나타난 새로운 언어문화현상으로, 여기에서 응용언어학 및 사회언어학의 사이버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기존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중국 인터넷 통신언어의 전제이자 기초로서 인터넷 통신 언어의 개념, 기본 성질, 사용 환경 및 문화 특성 차이점, 공통점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현재 통신언어는 네티즌들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일부 단어들이 사람들에게 신기한 느낌을 주는 동시에 의사소통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언어개혁위원회는 2007년 8월27일에 영어문자와 통신언어에 관한 연구토론회를 소집하여 언어학자, 작가, 사회자 등 전문가들을 초빙해 공동적으로 통신언어에 관한 규범문제를 연구, 토론 했다. 인터넷의 빠른 발전에 비해 통신언어의

역사는 길지 않다. 그러나 급속한 인터넷 확산 속도에 발맞추어 90년대 중반에는 미흡했던 통신언어에 대한 연구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다. 통신언어의 연구는 크게 통신언어 자료조사 및 통신언어의 특성에 대한 연구, 통신언어 사용에 대한 윤리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 통신언어가 가지는 사회, 문화적 의미를 중심으로 한 연구 등이 있다.

한국학술 분야에서 이정복(2000)은 설문지를 통하여 통신언어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입말과 글말을 비교하면서 통신언어에 대한 이해를 정리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통신언어를 표현적 특성과 오락적 특성 그리고 심리적 해방 특성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알아보았다.

이정복(2003)은 그 동안 발표되었던 단편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에 대한 '통신 언어 보고' 및 '바람직한 통신 언어 사용'에 대한 견해를 적고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의 게시판언어, 대화방언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언어 등의 실태를 분석하고, 통신언어 사용자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세대별, 성별, 지역별, 직업별 언어 사용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통신언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통신언어의 문제점 대해 통신 이용자들은 비규범적 통신언어가 몸에 익게 됨으로써 언어 사용에서 진지함이 약해지고 언어 내용보다는 언어 형식에서 재미와 의미를 찾으려는 일종의 퇴행 현상과 심리적 혼란을 겪기 쉽다. 결과는 인터넷 통신언어는 재미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줄임말이나 변이형의 낱말 몇 개를 사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맞춤법이나 문법에 맞지 않는 언어가 표준인 것처럼 인식되고, 나아가 그러한 비규범적 언어사용 방식이 일상 언어까지 널리 퍼져 나가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일탈 현상이라 할 수 있다.(이정복, 2003, 454-464)

이지기(2004)는 컴퓨터 통신이라는 새로운 의사소통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곳에서 통용되고 있는 컴퓨터 통신언어의 개념, 특성, 생성원인을 알아보고 그러한 이론적 토대위에서 통신언어의 국어 교육적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중국에서 비교적 일찍 인터넷 통신언어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던 勁松, 麒可(2000)는 넓은 의미의 인터넷 통신언어란 인터넷통신망시대, E-시대의 출현과 더불어 나타난 인터넷 통신망 및 전자 기술과 관련된 ‘다른 종류의 언어(另類語言)’이고, 좁은 의미의 인터넷 통신언어란 네티즌, 특히 ‘인터넷광’(网虫) 들의 언어라고 정의하였다. 周洪波(2000)는 『中國網絡語言詞典』의 머리글에서 인터넷 통신언어는 사람들이 인터넷 통신망에서 교류할 때 사용하는 언어형식이라고 정의하고, 대체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는 인터넷 통신망과 관련된 전문 기술용어이다. 둘째는 인터넷 통신망과 관련된 특수용어이다. 셋째는 네티즌들이 대화방과 전자 게시판 등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다. 『中國網絡語言詞典』의 주간이었던 于根元(2001)은 ‘인터넷 통신언어’라는 그 자체도 하나의 인터넷 통신용어로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나름대로의 특징을 지닌 자연언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何洪峰(2003)은 더 나아가 인터넷 통신언어란, 첫째는 인터넷매체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그 기본 어휘와 어법, 구조, 형식 등의 주체형식이 여전히 전 국민이 사용하는 현대 중국어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며, 둘째는 IT 영역의 기술 용어 혹은 인터넷상의 활동과 관련된 명사 술어를 가리키는 것이고, 셋째는 좁은 의미의 개념으로 네티즌들이 창조한 일련의 특수한 정보와 기호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張鐵文은 현재 사전연구실에서는 ‘신사사전(新事詞典)’이라는 사전을 편집하고 있으며 일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사용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수록했다고 한다. 이 사전은 다음해에 정식으로 출판,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한중 인터넷 통신언어의 공통적 특징

오늘의 중국도 한국처럼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의 대중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인터넷에서의 통신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개성을 반영하면서 언어가 크게 변화되고 있다. 언어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언어의 보편적인 특성이지만 인터넷에서 언어의 보편적인 변화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통신 언어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성을 중국과 한국 각 분야의 차이점 공통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 공히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의 근본적 특징은 가상성이다. '가상(Cyber)'이란 컴퓨터 기술 용어의 하나로 소프트웨어를 작동시켜 생성된 사물을 가리키는 말로써, 실제 물리적 형태로 존재하는 사물이 아니다. 즉 인터넷상의 모든 행위는 우선 기호를 거쳐 비로소 실행되는 것이므로 '가상적'인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의 가상적인 기호의 세계에서 생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자신들도 이에 상응하는 기호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 의사소통의 가상성은 현실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진실한 세계의 모종의 지칭일 뿐 아니라 진실 세계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대화방에서 어떤 채팅 상대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각각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별명(网名)⁹⁾으로 만나게 되는데, 각각의 별명과 거기에 내포된 기호적 의미를 이해할 뿐 아니라 그와 관계를 맺고 서로 교류함으로써 현실 생활에서와 같이 사람들과 교류한다는 느낌을 얻어 고독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언어 사용 환경은 인지 활동을 통하여 사람들의 기억 속에 지

9)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68.85%가 인터넷상의 별명을 사용하였다. '网名'은 네티즌들의 인터넷상에서 신분을 나타내는 표정으로, 타인들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 개성과 창조력을 발휘하는 관건이 되는 것이다. '网名'은 사용자들의 기호, 행위의 풍격, 문제 의식 등을 체현한 것으로 각각의 '网名' 자체가 이미 다양한 문화적 색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网名'은 아음대로 바꿀 수 있고 동시에 여러 개를 사용수도 있으며 때로는 자신의 실제적 신분과 상반되는 의미를 내포할 수 도 있다. (于根元(2001) 앞의 책 pp. 114-116)

식으로 내재화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 뽑아내져서 언어 행위 이해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인터넷 통신언어 환경의 머릿속에 조성된 ‘가상적’ 특징 때문에 인터넷상의 언어 행위가 일어나는 순간에 얻어지는 현장 환경 역시 ‘가상적’성격을 띠게 된다. 또한 의사소통의 대상 역시 누구나 서면을 통한 현실 세계에 의사소통 대상과는 다르게 임의적이고 비정형적이며 때로는 성별이나 연령조차 상반되게 도치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와 같은 특수한 언어 사용 환경 하에서 진정한 평등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周明强, 2005, 308-9)

둘째, PC라는 가상공간을 통해서 대다수가 익명성으로 문자 표현을 한다. 모든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신이 올린 글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민주주의인 한국도 그렇지만 특별히 사회주의인 중국에서도 지위와 권위, 명예 등이 중시되기 때문에 무너진 비 격식적인 표현들이 종종 사용되어질 수 있으며, 컴퓨터 통신언어는 문자언어와 음성언어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순간적, 즉각적, 친교적, 직접적인 기능이나 표현적인 기능이 많이 사용되기도 하며 다양한 언어 변이를 반영하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변형된 언어 즉 비문법적인 언어나 생략된 언어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몸짓, 표정, 소리의 강약과 고저 등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이 결핍된 특수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피차 본래의 진면목은 일지 못한 채 단지 모니터에 나타난 기호에 따라서만 정보를 전달하고 사상을 교류하는 것은 바로 네티즌들의 ‘대상이 아니라 소통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집단 심리와 인터넷 공동체의 ‘실제적이고 형태적인 것을 피하고 가상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독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⁰⁾

10) 陆欣 『中韩网络语言的差异比较』 科技文化 pp. 52-54 참조

셋째, 통신언어는 다른 언어의 다양성과는 매우 독특한 상황적인 제한의 단계에 의해 규정된다. 아마도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되는 메시지는 기존의 관습적인 관점에서 문어도 구어도 아닌 것이다. 이용자가 들을 수 없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구어라고 규정지을 수 없으며 또한 통신언어의 대부분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엄밀히 문어라고 할 수도 없다. 스피처(Spitzer)는 이러한 양상을 “쓰면서 말하는”, “전화로 전송된 쓰인 편지”, “부분 동작으로 하는 것처럼”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메시지는 반드시 쓰여야만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통신언어는 기존의 문어, 구어와는 매우 다른 제2언어의 구술성을 가진, 전자매체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제3의 언어이다. 즉 구어와 문어의 일부 특성을 소유한 특수한 언어라는 것이다.

또한 언어는 한 나라의 문화수준과 그 시대의 사회모습을 반영하는 의사소통의 도구이다. 언어는 한 언어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끼리의 약속, 즉 사회적 계약을 바탕으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하는 수단이다. 이런 점에서 언어는 사회를 형성하는 중요한 도구이며 매체이다. 언어는 한 언어사회의 약속을 전제로 한 의사소통의 도구라는 점에서 그 공동체의 사고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하여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은 그것으로 인해 동질감이나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언어의 변화가 느리게 일어나서 동시대에서는 이를 분명하게 느끼지 못하는 때가 많았다. 그러나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들어선 지금에 와서 언어의 변화가 너무 빨라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기존의 규범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형식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중국에서 인터넷 통신언어를 보면 글과 외국어를 결합, 합성 그리고 변형하고, 이것은 문자의 시각성만을 극대화한 일명 “외계어”로 불릴 만

큼 변화되었다. 예를 들면 “이구동性”, “ㄱ나자(만나자)”, “ㅅ잇 ㄷ읏(철이 들어)” 등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또는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이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이다.

중국 통신언어를 보면 해음현상, 동음자 대체, 새로운 어휘의 등장, 약어의 사용, 아라비아 숫자의 대량적인 사용 등의 면에서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醬紫(這樣子이렇게), 幽香(郵箱우편함), 老鼠(鼠標,Mouse), 菜鳥(인터넷 못하는 사람, 恐龍(추녀) 등이 있는가 하면 아라비아숫자 사용에서 7456*qi si wu liu*(气死我了*qi si wu le*열받아 죽겠네), 246*er si liu*(愛死了*ai si le*너무 사랑한다고), 1573*yi wu qi san*(以往情深*yi wang qing shen* 정이 깊다) 등이 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은 언어규범에 맞지 않다거나, 언어에 대한 파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주로 중국과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통신언어를 분석하고 그들의 같은 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며 그 대응관계에 대하여 논술하려고 한다.

1) 인터넷 통신언어의 어휘적 특징

통신언어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어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통신언어는 통사론적으로도 표현되고 있지만, 중국의 통신언어는 주로 어휘적 특징에서 나타나며 이것은 통신언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겠다.

(1) 약어와 의미가 변형된 단어의 사용

한국어 통신언어에서의 약어의 사용은 통신언어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언어에도 그 사용의 편리성에 의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전대협(전국대학생 협의회), 연세대(연세대학교),時事政治(時政),北京大學(北大),全國人民代表大會(人代會)등이 있다. 하지만 통신언어에서는 이보다 더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통신언어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되고 있다.

통신언어에서 약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편의성과 경제성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개성화와 동질감의 산물이기도 하다. 중한 언어문자의 다름으로 하여 약어의 사용방식에서도 선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어는 표음문자이기 때문에 연음법, 합성법, 생략법 및 자음대체법 등이 있다. 중국통신언어의 약어방식은 주로 4 가지가 있다. 즉 영어를 차용하여 생략하는 방식, 병음을 생략하는 방식, 합성법 및 한자와 숫자, 병음, 영어를 결합하는 방식 등이 있다.

한국 통신언어 중의 연음법은 어음적 특징의 생략과 축약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언급하지 않고 합성법, 생략법, 자음대체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2) 합성법(合成法)

정모-정기모임 즐통-즐거운 통신

통친=통신친구 통장-통신장래

당스-당연한 스토리 줄팅-줄면서 하는 채팅

취팅-취하면서 하는 채팅 몰팅-몰래하는 채팅

비방-비밀 대화방 비게-비공개 게시판

강퇴-강제 퇴장 영퀴-영화퀴즈

비번-비밀번호 설녀-서울 여자

남친/여친-남자친구/여자친구 열공-열심히 공부하다

방장-방의 장: 대화방을 처음 만든 사람

이는 주로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여 만들어낸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특징이라면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는 대부분이 인터넷과 관련된 어휘라는 것이다. 이것은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만큼 네티즌들이 공동으로 알고 있는, 자주 사용하는 어휘들이어야만 약어로 처리해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따질 때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는 그것을 요약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누가 요약하여 사용하여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3) 생략법

위의 예가 단어결합을 요약하여 사용한 약어라면, 통신언어에서는 또한 하나의 단어에서도 한두 음절만 택하여 약어처럼 쓰기도 한다. 즉 “핸드폰”을 “핸디, 헨편, 폰”으로 “컴퓨터”를 “컴”으로 “잠깐만”을 “잠만”으로 사용한다.

자음 대체법

“ㅎㅎㅎ(흐흐흐)”, “ㅋㅋㅋ(크크크)”, “ㄱㄷㄱㄷ (키득키득)” 등이 있다.

이밖에 또 영어 문자 대체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0C미- 열심히 RG-알지

근D-근데 R췌G-알췌지

등과 같은 것이 있다. 여기서 본다면 의성의태어를 자음으로 대체하는 현상이 많이 존재하다. 그것은 한국어에서 일부 자음 자체가 의성어발음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ㅎㅎㅎ(흐흐흐)”, “ㅋㅋㅋ(크크크)”, 등은 가령 모음을 안 쓰더라도 그 발음이 웃는 소리와 거의 비슷하다. 이

것 또한 한국어가 표음문자로서 중국어에 비해 그 우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4) 영어를 차용하여 생략하는 방식

BF:boy friend

GF:girl friend

SP:support

LOL: laugh out loud

SM: Sadism& Masochism

PK:player kill

DL: down load

BRB: Be right back

TTYL:Talk to you later

PPL:people

PLZ,PLS:please

CU: See you

등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특수한 예는 "CU"이다. 이것은 영어단어의 언어에서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일상용어보다 통신언어에서 약어가 더 많이 사용되는 또 하나의 원인은 통신언어사용에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이다. 긴 단어나 단어결합을 그대로 치기보다는 약어를 사용하는 편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의미변형

통신언어에서는 또한 통신에 필요한 언어들을 새로 만들지 않고 이미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잠수"란 물속에 잠겨 있음을 뜻하는 말인데, 통신언어에서는 두 사람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나 혹은 채팅방에 들어와서 말없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잠수함(채팅할 때 말을 하지 않는 것), 수면으로 부상(두 사람만이 이야기를 주고받다. 여

러 명이 대화하는 것), 떠올랐다(수면부상과 같은 뜻)”이란 단어도 파생하여 생겨났다. 그리고 “번개”란 양전기와 음전기의 구름 사이의 병전현상으로 몹시 빠르게 뻗어가는 빛이란 의미에서 파생되어 동작이 아주 빠르고 날랜 사람이나 사물을 비유하여 일컫는 말로 쓰이는데, 통신언어에서는 통신 대화중 친해진 당사자와 사이버 공간이 아닌 실제공간에서 빠르게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도배”는 종이로 벽, 반자, 장지 같은 것을 바르는 의미를 지니는데 통신언어에서는 대화방에서 자기 혼자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 게시판에서 같은 글을 연속적으로 올리는 것과 같이 쓸데없는 말로 화면을 꽉 채우는 것을 말한다. “잘린다”는 대화하는 도중에 접속이 강제로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유령”이란 죽은 사람의 혼령이란 뜻인데 통신언어에서는 채팅방에서 대화명이 없는 경우나 통신 동호회에 가입만 하고 활동이 없는 회원을 의미한다.

중국어와 영어 상용 어휘 중에 의미 전환(轉化) 혹은 비유로 인터넷 통신 언어의 신조어가 된 경우이다. 즉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을 인터넷상에서 차용하여 새로운 사물을 표현하게 된 것으로, 형상 혹은 의미상의 유사함이 연상 작용을 일으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것이다. 이는 주로 창의성 풍부한 젊은 네티즌들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생동감 있고 매우 형상적이며 재미있다. 중국 인터넷 통신 언어의 어휘 중 의미의 변이를 일으킨 것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귀납할 수 있다.

첫째, 먼저 해음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든 후에 새로운 해석이 부여된 것으로, 대부분의 중국어 해음어가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大蝦’는‘大俠’의 해음어로, 컴퓨터 조작 수준이 높고 매우 익숙한 컴퓨터 고수 혹은 컴퓨터 애호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오랜 시간 컴퓨터에 빠져 있어서 활처럼 등이 구부러져 마치‘大蝦’ 같이 된 모습을 표현하는 것으로, 농담의 의미가 부여된 것이다.

중국어에서도 이와 같이 의미가 변형된 어휘들이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둘째, 원래 있던 단어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어, 새로운 의미로 새로운 사물을 비유하는 것이다.

· 菜鳥, 小蝦- 컴퓨터 조작 수준이 낮거나 인터넷에 접속하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되는 네티즌을 가리키는 것으로, ‘大蝦’ 와 상대적인 표현.

· 飛鳥, 老鳥- ‘와 상대적인 표현으로, 인터넷 고수를 가리킴.

· 網虫, 爬虫, 飛虫-‘網虫’ 은 일반적인 네티즌을 말하며, ‘爬虫’은 초급 네티즌, ‘飛虫’은 고급 네티즌을 가리킴

· 灌水- 전자 게시판에서 마치 물을 쏟아 붓듯이 짧은 글들을 아무렇게나 대량으로 발표하는 네티즌을 가리킴.

· 水桶, 水鬼, 水仙, 水网, 水母-광적으로 글을 많이 올리는 사람(灌水狂人)을 가리키는데, 특히 ‘水母’ 는 여성을 가리킴.

· 潛水員-다른 사람이 올린 글만 보고 본인을 글을 올리지 않는 사람.

· 造磚-벽돌을 하나하나 쌓듯이 온 정성을 다하여 글을 남기는 것을 가리킴.

· 拍磚-‘拍’ 는 ‘손바닥으로 치다’의 의미로, 벽돌을 손바닥으로 치듯이 인터넷상에서 논쟁할 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것을 가리킴.

· 寫手-인터넷 문화의 작가를 가리킴.

· 貼吧-인터넷 논단을 가리킴.

· 美眉-인터넷 통신 언어 중 제일 먼저 생겨난 신조어 중 하나로, 젊고 예쁜 여성을 가리킴. 아름다운 눈썹은 아름다움의 관건 중 하나이므로 함축적이고 매우 형상적이며, 중국인들의 전통적 문화 심리와도 부합함. 또한 연령적 특성도 모호하므로, ‘妹妹’의 해음보다 더 광범위하게 사용됨.

· 恐龍-‘美眉’ 와 대응되는 것으로, 특히 보는 사람에게 미안할 정도로 못

생긴 인터넷 여자 친구를 공룡에 비유.

- 食肉性恐龍-못생기고 거센 여자.
- 食草性恐龍-못생겼지만 온화한 여자.
- 青蛙-못생긴 인터넷 남자 친구를 청개구리에 비유.
- 包子-못생기거나 바보 같은 사람을 가리킴(예를 들면 “ 你包子 ”).
- 太平公主-가슴이 평평한 여자를 가리킴.
- 孔雀-자기 스스로 다정하다고 생각함.
- 扇子-영어의 ‘fans’에서 기원한 것으로, 열광자(), 애호가를 가리킴.
- 粉絲-영어의 ‘fans’와 동음으로, 지지자, 팬의 뜻.
- 抓狂-자극을 참을 수 없어 비정상적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킴.
- 木有-‘沒有’없다 의 의미.
- 走召弓雖-‘超強’의 의미(글자를 분해하여 새로운 단어를 창조해냄).

셋째, 원래의 단어를 축약의 형식으로 개조한 후 의미를 변화시킨 것인데, 때로는 의미를 왜곡시키거나 정반대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天才- ‘天生蠢材’(천부적인 둔재)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취한 것인데, ‘天才’와(천재)동음이어서 역설적임.
- 偶像-‘使人嘔吐的對象’에서 ‘嘔’와‘像’을 취한 것인데, ‘偶像’이란 단어와 동음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메스껍게 하는 상대를 가리킴.
- 討厭-‘討人喜歡,百看不厭’에서 ‘討’와 ‘厭’을 취한 것으로, 남에게 귀여움을 받고 아무리 보아도 밉지 않은 것을 가리킴.
- 善良-‘善變而沒有天良’에서 ‘善’과‘良’을 취한 것으로, 잘 변하고 양심이 없는 것을 가리킴.
- 神童-‘神經病’에서 ‘神’과 ‘童’을 취한 것으로, 정신병 걸린 아이를 가리킴.
- 可愛-‘可憐沒人愛’에서 ‘可’ ‘愛’를 취한 것으로, 아무도 좋아해 주지 않

아 불쌍하다 는 의미.

· 賢惠-‘閑到家里什么都不會’에서 ‘閑’과 ‘會’를 취하여 해음으로 바꾼 것으로, 집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게으르다는 의미.

· 蛋白質- ‘笨蛋(바보) + 白痴(백치) + 神經病(신경질)’과 같음

중국 통신언어에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것은 동물 명칭을 사용하여 일부 사물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猫(고양이): MODEM

网虫(인터넷 벌레): 네티즌

鷄(닭):HOMEPAGEP

狐狸 (여우):FOXMAIL

狗(개):HOTDOG

狼(늑대):색마

馬(말):트로이(의) 목마 컴퓨터 바이러스

老鼠(쥐): MOUSE

鳥(새):인터넷 못하는 사람

螞蟻(개미):NETANT

牛niu(소):최신 뉴스 NEW

이렇게 일상 언어에서 쓰이는 의미와 다른, 새롭게 파생된 뜻으로 언어가 사용되는 것은 기존의 가치질서에 대항하고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창출하고 자신들의 개성을 충분히 살리려는 신세대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

2) 통신언어에서 기호 사용

(1) 숫자 기호의 회의와 연상

인터넷 통신언어 중의 숫자의 운용은 인터넷 통신언어 구성 형식에 있어서 다양성의 또 다른 표현으로써 거의 극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인터넷상에서 숫자의 운용이 한자나 영어에 비해 편리하고 간단하기 때문이다. 즉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현대 정보 시대는 숫자화의 시대라 할 수 있으며, 인터넷 통신의 신속한 전파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필획 분석이 필요 없이 곧바로 컴퓨터 자판을 이용할 수 있는 숫자나 기호의 이용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숫자에 여러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여 사용하기를 즐겼기 때문에 숫자와의 접촉이 더 쉽고 빠를 수가 있다. 숫자기호의 운용 방법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숫자 해음 방법뿐 아니라 숫자의 '회의(會意)'나 '연상(聯想)'을 이용하여 단어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인터넷상에서의 약정속성을 바탕으로 특정한 의미를 표현하는데 사용되므로, 인터넷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775- '我要造反了'(1775년은 미 독립 전쟁이 발발한 해이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의미로 사용됨)
- 13579-'此事真奇怪'(1,3,5,7,9는 모두 홀수인데, 영어에서 '홀수'와 '이상하다'는 뜻을 나타내는데 모두 'odd'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일은 정말 이상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됨)
- 0001000-'我真的好孤獨'('1'은 한사람을 표시하고 '0'은 공허함을 나타내므로 그 의미를 취한 것인데, 이는 육서(六書)의 '회의'와 유사함)
- 121-'想要和你單獨交談'('2'의 영어 발음인 'two'와 'to'는 해음이므로, '1to1'은 '1:1' 의미를 취한 것임)
- 286-'你腦子轉的慢,像台電腦一樣'(일반적으로 지능이 낮고 반응이 느린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운행 속도가 지극히 느린 지난 시대의 컴퓨터 기

종을 비유한 것)

- 007-‘我有一个秘密要告诉你’(007영화에서 영감을 얻은 표현)
- 10-‘你十分完美’(‘10’은 완전함을 나타냄)
- 11-‘你比完美還完美’(진짜 정말로 완벽합니다)

(2) 문자와 기호의 혼용

네티즌들이 입력 속도를 높이기 위해 중국어와 영어 단어를 개조하여, 문자, 숫자, 자모 등을 임의로 연결하거나 함께 뒤섞어 놓은 것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자모사의 일종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哈-‘喝酒*he jiu*’(한자와 숫자의 혼합)
- 眞e心-‘眞惡心*zhen e xin*’(한자와 자모의 혼합)
- 4U-‘For you’(숫자와 자모의 혼합)
- L8R-‘Later’(숫자와 자모의 혼합)
- F2F-‘face to face’(숫자와 자모의 혼합)
- 3KU,3KX-‘Thanks 혹은 Thank you’(숫자와 자모의 혼합)
- B4-‘before’(숫자와 자모 혼합)
- 4ever-‘forever’(숫자와 영어 단어의 혼합)

특히 숫자와 자모가 혼합된 자모사(字母詞)¹¹⁾는 영어를 쓰는 국가에서 시작된 인터넷 통신 언어로, 표현이 풍부하고 생동적이며 형상적인 의미를

11) 자모사(字母詞)한 개의 음절(音節)을 자음(字音)과 모음(母音)으로 갈라서 적을 수 있는 낱말의 글자. 한 문자(文字)의 음(音)을 밝히는 글자. 즉 절음, 중국(中國)의 음운학(音韻學)에서 자모(字母) 이외의 글자, 중국어 성모23개 운모24개. 라틴 자모(한어 병음 포함) 혹은 그리스 자모로 구성된 단어, 혹은 한자, 기호, 숫자로 구성된 단어로 인터넷 통신언어 체계 중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李鐵范, 『網絡語言研究綜述』, 『語文學刊』第九期, 2005)

내포하므로, 이미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다 아는 ‘국제적 어휘’가 되었다.

(3) 도형 기호류 - 표정 문자(이모티콘)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에서는 대면적인 의사소통에서와 달리 어조, 얼굴 표정, 몸짓, 손짓 등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인터넷 통신 언어 중 자판상에 있는 각종 자모, 문장 기호, 수학 기호 및 기타 자판 기호들을 조합하여 만들어진 도안 언어가 출현하였다. 이러한 기호들은 사람들의 표정, 표현하고자 하는 심정 등을 마치 상형 문자처럼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묘사해내므로, ‘현대 갑골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그것은 음과 의미의 결합이라는 기본적인 단어 구성의 특징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언어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中國網絡語言詞典』에 수록된 96개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은 민족적 색채를 띠기도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기호들은 전 세계화된 인터넷 언어 환경의 특성 때문에, 언어나 민족적인 제한을 초월하여 더욱 생동감 있고 활발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므로 광범위하게 애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감정 기호들이 사용되는 예를 보면, 일반적으로 ‘:’는 눈을, ‘-’는 코를, ‘)’은 웃거나 기뻐하는 입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이 세 가지가 결합된 ‘:-)’은 웃는 얼굴을 나타내고 기쁘고 유쾌함을 표시하는 것으로 상용되는데, 만약 머리를 왼쪽으로 90도만 돌려 보면 그 오묘하고 신비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은 울거나 화가 난 입을, ‘0’은 놀라거나 크게 웃을 때 크게 벌어진 입을 대표한다. 도형 기호들의 조합 방식에는 문장 기호, 수학 기호, 기타 자판 기호 등 각종 기호로 조합된 것(예를 들면 ‘:-)’(매우 기쁨), ‘:-...’(상상함) 등 기호와 숫자로 조합된 것(예를 들면 ‘8->’ (매우즐거움), ‘:-6’ (혐오감) 등) 기호와 자모로 조합

된 것(예를 들면 ‘|P’(포복 절도함), ‘T-T’(호느끼는 얼굴) 등이 있다. 또한 내용상으로는 정감 표현, 동작 표정, 성음 어기류, 신분 표시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원래 아무 의미도 없었던 기호들을 겹쳐 써서 다양한 실제 의미를 나타내는 기호 언어, 도형 언어를 만들어 낸 것은 인터넷 통신 언어 중 네티즌들의 창조력이 가장 많이 발휘된 부분으로, 그 표현이 구체적이고 생동감이 있으며 유머가 있어서 전 세계의 네티즌들에게 널리 애용되고 있다.

3. 한중 인터넷 통신언어 차별적 특징

1) 한국 인터넷 통신언어 현상의 분석

(1) 통신언어의 음운론적 특징

우리의 언어활동은 말과 글을 통해 이루어진다. 말은 음파를 통한 청각 기능을 활용하는 음성언어이고 글은 문자를 통한 시각 기능을 활용하는 문자언어이다.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상반된 특징을 볼 수 있다.

“첫째, 감각의 측면에서 음성언어는 청각(음파)을 문자언어는 시각(문자)을 사용한다. 둘째,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상호 작용 측면에서 음성언어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상호작용(feedback)이 가능하다. 즉 청자는 화자가 되고 화자는 청자가 될 수 있다. 문자언어는 필자와 독자 사이의 상호 작용이 불가능하다. 즉 독자는 필자가 될 수 없으며, 필자는 독자가 될 수 없다. 셋째, 대상의 명확성 측면에서 음성언어는 화자와 청자가 분명하다. 즉 대화가 특정인과 특정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문자언어는 필자

와 독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필자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글을 쓰고, 독자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글을 읽는 경우가 많다. 넷째, 공간 공유성 측면에서 음성언어는 화자와 청자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문자언어는 필자와 독자의 공간이 다르다. 다섯째, 시간 공유성 측면에서 음성언어는 화자와 청자가 같은 시간에 있지만, 문자언어는 필자와 독자의 언어 처리 (생산과 수용)시간이 다르다. 여섯째, 발신자와 수신자의 구분 측면에서 음성언어는 누가 말하고 (발신자)누가 듣는지 (수신자)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경우가 많다. 문자언어는 글을 읽으면서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발신자의 의도, 또는 수신자의 상황이나 의도)등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 일곱째, 보조적 도움과 활용 측면에서 음성언어는 몸짓 등의 제스처를 활용하고 표정을 볼 수 있으며, 말소리에 다양하게 변화를 주어 화자의 뜻과 감정을 전달한다. 문자언어는 몸짓이나 표정을 활용할 수 없지만 대신 글자의 모양이나 색깔에 변화를 주거나 문장부호, 여백 등을 활용할 수는 있다. 이와 같이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는 상반되는 특징을 보인다.”¹²⁾

통신언어의 등장하면서 그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언어이용 습관이 크게 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인쇄매체 환경에서 사람들은 말과 글을 분명히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나 전자매체 환경에서는 그러한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다. 전자매체가 언어 사용의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제거하면서 전자매체 공간에서 이용자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

① 소리대로 적기

인터넷 통신언어의 특성 중의 하나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국어는 소리글자이기에 소리 나는 대로 적지만 형태론의 원칙

12) 이영아(2005). 『중국 인터넷 통신언어의 사회언어학적 고찰』.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인용

에 맞도록 적는다는 규정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통신언어에서는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거의 모든 것을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컴퓨터 통신의 여러 가지 특성으로 볼 때 문어보다는 구어에 가깝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의 규정과 어긋나는, 말을 하듯이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연결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연결은 어휘형태소의 경계표기와 관련된다.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 등 문법형태소가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 오는 조사나 어미 등 문법형태소가 모음으로 시작될 때 실제발음에 따라서 형태소 사이의 경계를 밝히지 않고 어휘형태소의 자음은 문법형태소의 초성의 표기 방식을 말한다. 한글 맞춤법은 원칙적으로 분철을 채택하여 어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의 경계를 밝힐 뿐만 아니라 형태음소론의 체계에 따라 어휘형태소를 고정시키는 표기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

된소리 적거나 소리 나는 대로 적기는 통신언어의 전형적인 입말의 특징에 기인한다. 특히 된소리로 적는 소리에 변화를 주는 것과 강한 어조를 남기려는 의도에서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은 대체로 음소를 하나 줄이고 쉽게 적을 수 있다는 표현상의 이점도 있다.

예 13)

- * 밥 마니 머겼냥? < 밥 많이 먹었냐? >
- * 마자!! @@ < 맞아!! (휘둥글) >
- * 머가 잘 못 된거양? < 뭐가 잘 못됐어? >
- * 시러 널 보자 < 싫어 내일 보자 >
- * 그 쉼리 어이 엄따 < 그 녀석 어이없다. >
- * 응~ 나아템 마니 이써 < 응 나 아이템 많이 있어 >

13) http://cafe.naver.com/greenm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464 인용

- * ㄴ나 거 조아해 < 아니 나 그것 좋아해 >
- * 그녀 차캐? < 그녀 착해? >
- * 추카 추카^^* < 축하 축예를 들면
- * 마니-많이
- * 시퍼-싫어
- * 이썬요-있어요
- * 마자마자-맞아맞아
- * 조아-좋아
- * 무려봐도-몰어봐도
- * 어리자나-어리잖아하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르면 어간과 어미의 경우도 구별하여 적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 싫어 = 시러 ’로 적는 것을 맞춤법에 어긋난다. 또한, ‘ 축하 = 추카 ’, 둘이 = 두리’ 와같이 명사 내에서도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리 나는 대로 적되 형태를 밝혀 적는다는 현행 규정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② 한국어 자모음의 대치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다보니 한국통신언어에는 자모음들 사이의 여러 가지 대치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형태적 특징은 통신언어에서 표기상으로만 달라지는 것으로써 통신언어가 실제 발음을 표기에 반영함으로써 생겨난다. 이는 통신언어가 구어체의 특징을 지니지만 “문자 언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으로 자신의 뜻을 강조하고 면대면 대화가 아닌 통신 언어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부호를 남용하거나 감정 표현 부호(emoticon)를 사용하고 자모를 해체하여 사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표기 양상은 학생들의 일상 언어에서도 별 차이 없이 그대로 나타난다. 통신언어가 통신 환경이라는 특수한 제약 때문에 생겨난 언어이긴 하지만, 이미 습관화된 표기 방식은 통신상의 언어와 거의 흡사하게 때론 확장되는 형태로까지 전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명사는 통신언어와 일반 언어 모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어휘이다. 그래서 통신언어에서 가장 다양한 형태변이가 나타나고, 새 말도 많이 생성된다. 명사는 일반 언어보다 통신언어에서 의미를 전달하는 주된 역할을 하게 된다. 조사나 관형어의 수식을 생략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의 사용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명사는 어휘의 의미가 뚜렷하고 문장에서 주된 의미를 표시하기 때문에 형태변이와 의미변이가 모두 나타나게 된다. 고유명사의 경우 의미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변이는 있을 수 없다. 의존명사의 경우도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의미변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통신언어에서 의미변이는 일반명사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③ 형태변이

명사의 형태변이에는 크게 보아 축약, 첨가 그리고 변이 등이 있다. 축약은 다시 음절 축약과 음소 축약이 있으며, 음절과 음소가 같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첨가는 음절 첨가는 없고 음소 첨가만 나타난다. 변이는 음성 표기의 영향으로 연철이 일어나거나 음소가 다른 음소로 변이되는 것을 말한다. 간혹 외국어를 한국어 발음 그대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래어 표기법을 준수 하지 않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고 있다. 또한 한국

어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컴퓨터 통신에서 유효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변이된 어휘는 형태가 다를지라도 원래의 어휘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축약에서 음절 축약은 하나의 단어를 한 음절로 축약하는 경우, 두 개 이상의 단어에서 단어별로 한 음절씩 취한 경우가 있다. 두 개 이상의 단어에서 단어별로 한 음절씩 취한 경우도 각각의 앞 글자만 취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표1> 음절 생략의 예(한 음절로 축약된 경우)

통신언어	원형
갑	동갑
방	대화방
컴	컴퓨터
텔	하이텔

한 음절로 단어를 축약하는 경우 단어의 첫 음절이나 마지막 음절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 단어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쓰인 음절을 사용하는 것이다.

<표2> 음절 생략의 예(단어에서 음절 일부가 생략된 경우)

통신언어	원형
텔비	텔레비전
범생	모범생
스펠	스펠링
애니	애니메이션

단어에서 음절을 생략하는 것은 위치에 상관없이 나타난다. 일반적인 경우 단어의 뒷부분을 생략하지만 ‘텔비’, ‘범생’ 등과 같이 단어 중간이나 앞

음절을 생략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표3> 음절 생략의 예(앞 음절만 이용한 축약)

통신언어	원형	통신언어	원형
강추	강력추천	빠번	빠빠번호
강퇴	강제퇴장	새탈	새벽탈출
공구	공동구매	야자	야간자습
공근	공익근무요원	정모	정기모임
비게	비공개 게시판	즐통	즐거운 통신
비방	비공개 대화방	컴섹	컴퓨터 섹스
비번	비밀번호	통대	통화대기
통장	통화장애		

일반 언어에서 두자어와 같은 원리로 사용되는 것이다. 위 예들이 모두 컴퓨터 통신에서 만들어진 어휘는 아니다. 일반 언어에서 사용되던 단어가 통신언어에 그대로 적용된 경우도 있다. ‘야자’의 경우가 그러하다.

<표4> 음절 생략의 예(단어의 앞 음절, 뒤 음절을 사용한 예)

통신언어	원형	통신언어	원형
폰팅	폰(phone) 미팅, 전화 미팅	즐팅	즐거운 채팅
눈팅	눈 채팅(보기만하는 채팅)	취팅	취중 채팅
빠방	빠빠 대화방(빠빠번호를 알려주는 대화방)	정팅	정기 채팅
컴팔	컴퓨터 펜팔 E-mail 펜팔	방제	대화방의 제목
방장	대화방 장(長), 대화방 개설자		

음절 생략은 영문 표기에서 이니셜(intial) 표기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영어의 이니셜은 음소표기이고 한국어의 경우 음절표기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의 사용이 빈번해짐에 따라 한국어

어휘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으며, 이는 컴퓨터 통신에서 대화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욕구와 맞물려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음절 생략형은 유사한 단어에 동일한 형식을 적용하여 사용된다.

<표5> 음절 생략의 예(동일한 형식으로 생략된 예)

통신어휘	원 형	통신어휘	원 형
암퀴	암호 퀴즈	퀴방	퀴즈 대화방
역퀴	역사 퀴즈	마창방	마산, 창원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대화방
영퀴	영어 퀴즈	중방	중학생 대화방
잡퀴	잡다한 퀴즈	80방	80년생 대화방
삼퀴	삼국지 퀴즈	음방	음악만 듣는 대화방
음퀴	음악 퀴즈		

하나의 축약형이 생성되면 다른 어휘에도 동일한 형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대화방’은 컴퓨터 통신 초기에 ‘채팅’이 우리말로 ‘대화’로 바뀌면서 가상공간에서 ‘방’이 결합되어 사용되다가 그냥 ‘방’만 붙여서 사용하게 된다. 이 ‘방’은 일상 언어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한국의 ‘사랑방’ 이미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일본의 ‘가라오케’가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노래방’으로 불리면서 ‘방’의 의미가 확장되었고, 이 ‘방’은 컴퓨터 통신에서 여러 파생어휘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다시 일반 언어로 파급되어 ‘소주방, PC방’ 등의 어휘를 파생시키게 된다. 일반 언어에서 한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던 단어가 컴퓨터 통신에서 의미가 확장되어 다시 일반 언어로 돌아온 것이다.

단어에서 음절을 생략한 경우는 표기상의 편리를 위한 측면이 강하지만, 음소의 일부를 생략하는 것은 발음상의 편리를 위한 것이다. 음절 생략은 단어 형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음소 생략은 단어의 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표6> 음소 생략의 예

통신어휘	원 형	통신어휘	원 형
멜	메일(mail)	섬	시험
겜	게임(game)	앤	애인
넬	내일	울	우리
답	다음	잼	재미
설	서울	토울	토요일
천란	천리안		

음소의 생략은 모음 주로 마지막 음절의 모음을 생략하거나 합친다. 마지막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되고 앞 음절에 받침(종성)이 없는 경우 그러한 현상이 주로 나타난다. 모음과 모음이 연결되면 합쳐지거나 후행모음이 생략되는 것이다. 한국어는 모음이 연이어 오는 것을 기피하는 특성이 있다. 모음이 연이어 오는 경우 그 사이에 자음을 개입시켜 모음의 충돌을 피하게 한다. 그러나 통신언어에서는 자음을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충돌되는 모음을 하나로 합하거나 후행 모음을 생략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런 경우 합쳐지거나 생략된 모음과 음절을 이루었던 받침은 선행 음절의 받침으로 사용된다. ‘천리안→천란’의 경우 마지막 음절이 모음 ‘ㅏ’와 앞 음절의 모음 ‘ㅣ’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음절의 받침 ‘ㄴ’이 앞 음절의 받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시험→섬’의 경우는 두 번째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되지 않았으나 동일한 유형으로 음소 생략이 나타난다. ‘시험→섬’은 ‘시험’에서 두 번째 음절의 ‘ㅎ’이 탈락하고 ‘ㅣ’와 ‘ㅓ’가 합쳐져 ‘ㅓ’로 바뀌어 ‘섬’이 된 것이다. 한국어에서 초성 ‘ㅎ’의 음가가 약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선행 모음과 후행 모음은 합쳐지지 않고 둘 중 음가가 더 강한 쪽을 사용하고 음가가 상대적으로 약한 모음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울’은 두 번째 음절의 모음 ‘ㅣ’가 생략되고 두 번째 음절의 ‘ㄹ’이 첫 번째

음절과 합한 경우이다. 선행 모음 ‘ㅏ’가 후행 모음 ‘ㅣ’보다 음가가 더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음→담’, ‘토요일→토올’도 동일한 경우이다. 여기서도 생략된 모음과 음절을 이루었던 받침은 선행 음절의 받침으로 사용되고 있다.

‘메일(mail)→멜, 게임(game)→겜, 애인→앤, 내일→널, 재미→잼’은 이중모음과 ‘ㅣ’모임이 연결되는 것인데 이 경우도 음가가 약한 단모음이 생략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생략된 모음과 어울려 음절을 이루었던 받침은 선행 음절의 받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음절 생략과 음소 생략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표7> 음절과 음소가 동시에 생략된 예

통신어휘	원 형	통신어휘	원 형
쌤, 쌤님	선생님	멜팅	메일미팅
업글	업그레이드	알바	아르바이트
홈피	홈 페이지	야겜	야한게임

‘선생님→쌤’은 첫 음절에서 초성 ‘ㅅ’을, 두 번째 음절에서 중성 ‘ㄴ’을, 세 번째 음절에서 종성 ‘ㅇ’을 합쳐서 만들어진 어휘이다. 단어에서 음절 순서대로 초성, 중성, 종성을 취한 것이다. 형식이 완전히 영어 이니셜 표기와 동일하다. 음절 생략의 경우 영어 이니셜 표기와 음소와 음절이라는 차이를 보였지만 여기서는 똑같이 음소를 이용한 표기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음소생략은 앞서 논했듯이 음절 생략이 단어의 형태를 중심으로 하는 것에 비해 단어의 발음이 중심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선생님’을 빠르게 발음하여 음이 축약되는 경우에 ‘쌤’으로 발음된다. 통신언어가 음성언어를 문자화한 데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발음의 축약이 표기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쌤님’은 ‘쌤’이 이미 ‘님’이라는 음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님’이 중복 표기된 경우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면 ‘쌤’은 ‘선생’에서 두 음절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동일한 초성 하나를 생략하고, ‘ㄴ’과 ‘ㄹ’중 음감이 더 강한 이중모음 ‘ㄹ’을 취하고 ‘ㄴ’을 생략한 후 받침 ‘ㅇ’을 ‘ㄱ’으로 바꿔 발음을 종결짓고 있는 것이다.

‘멜팅’은 ‘메일→멜’의 음소축약이 이루어진 후 ‘미팅’과 합쳐지면서 ‘미팅’의 앞 음절을 생략하고 뒷 음절을 취한 것이다. ‘야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게임→겜’의 음소 축약이 일어난 후 ‘야한’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야한’의 앞 음절 ‘야’만 취하고 뒤 음절을 생략한 것이다.

‘업그레이드’와 ‘아르바이트’의 축약형인 ‘업글’, ‘알바’의 경우 유음인 ‘ㄹ’을 받침으로 앞 음절에 붙이면서 ‘ㄹ’과 어울린 모음을 탈락시키고 어휘의 뒷부분을 생략한 것이다.

‘홈피’의 경우도 ‘홈’과 ‘페이지’가 결합된 것인데 ‘홈’이 단음절어이기 때문에 축약하지 못하고 ‘페이지’를 축약하였다. ‘페이지→피’의 축약은 특이한 경우이다. 앞서 논했듯이 모음 연접에는 모음이 하나로 합쳐지거나 음가가 약한 모음이 생략되는데 ‘페이지→피’의 축약은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첫 음절 모음 ‘ㅐ’와 후행 모음 ‘ㅣ’ 중 음가가 더 약한 ‘ㅣ’가 사용되었다. 이것은 음가에 의한 축약 현상이기보다 ‘선생님→쌤’과 마찬가지로 유형으로 보인다. 첫음절에서 초성 ‘ㅍ’을 취하고, 둘째 음절에서 중성 ‘ㅣ’를 취하고 마지막 음절에서 종성을 취해야 하는데 마지막 음절에 종성이 없어 마지막 음절을 아예 생략한 경우이다.

음소를 생략하는 경우 외에 음소를 첨가하거나 변이시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표8> 음소가 첨가되거나 변이된 예

통신어휘	원 형	통신어휘	원 형
기뿐	기분	컴튀	컴퓨터
개시판	게시판	바부	바보
실랑	신랑	듀금	죽음
학논	학년		
두리	우리		

음소의 변이는 ‘기분→기뿐’, ‘컴퓨터→컴튀’처럼 좀 더 음감이 강한 음소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컴퓨터 통신언어가 음성언어를 문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앞에서 논하였다. 그러나 음성언어를 문자로 옮기다보면 음성언어에서 보조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음감, 성량, 음색 등이 전달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음감이 강한 음소로 대체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화하는 것이다.

‘게시판→개시판’의 변이는 ‘ㄱ’과 ‘ㄷ’의 발음상 유사성에 원인이 있는 듯하다. 그리고 컴퓨터 글자판에서 ‘ㄷ’과 ‘ㄱ’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어 표기에서도 혼란을 줄 수 있다. 일반 언어에서도 ‘ㄱ’과 ‘ㄷ’이 표기상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혼란이 컴퓨터 통신언어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죽음→듀금’, ‘우리→두리’는 구개음화 현상이 역으로 나타난 것이다. 구개음화현상은 구개음이 아닌 음운이 구개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ㄷ, ㅌ, ㄱ, ㅋ, ㅎ’ 이 구개음 ‘ㅈ, ㅊ, ㅍ’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끝소리가 ‘ㄷ·ㅌ’인 형태소가 ‘ㅣ’또는 반모음 ‘ㅣ’h 시작되는 형태소와 만나면 구개음인 ‘ㅈ, ㅊ’으로 발음되는 것이다(‘굳이’가 ‘구지’로 발음되는 따위). 그런데 컴퓨터 통신언어에서는 그런 구개음화가 역으로 나타나 표기되고 있다. 모음의 종류와 상관없이 구개음인 ‘ㅈ, ㅊ, ㅍ’등이 ‘ㄷ, ㅌ’으로 변이되고 있다. 이 역 구개음화는 대부분 ‘ㅈ→ㄷ’ 변이이고 다른 음

소는 드물게 나타난다. 다른 음소는 ‘ㅈ→ㄷ’ 변이 이후 조음위치의 유사성에 의해 대응되어 변이된 것이다.

인터넷 통신언어의 발생원이 되는 채팅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잘못 입력한 글자의 수정이 불가능하다. 또한 대화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상대는 오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 묵인하게 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발음이 유사한 ‘ㅈ’이 입력이 더 간편한 ‘ㄷ’으로 바뀌게 된 듯하다.

‘신랑→실랑’은 후행 소음인 ‘ㄹ’의 영향에 의한 역행동화로 인한 발음을 그대로 문자화한 것이다.

‘바부’, ‘학논’은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 바뀐 것이다. ‘바부’는 뒤 음절의 모음 ‘ㅜ’가 대응되는 음성모음 ‘ㅓ’로 변이된 것이다. 그래서 모음조화를 깨고 있다. ‘학논’은 뒤음절 모음 ‘ㅓ’가 양성모음 ‘ㅕ’로 바뀐 것으로 이 경우는 모음조화를 유지하게 하고 있다. 통신언어가 일반 언어에서는 일탈임을 고려할 때 모음조화가 유지되는 단어는 법칙에서 일탈시켜 모음조화를 깨고, 모음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어는 오히려 역으로 모음조화를 맞추어 일반 언어에서 일탈시키고 있는 것이다.

음소 변이된 어휘 중 컴퓨터 통신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 중의 하나는 ‘고등→고당’변이에서 유출된 어휘이다. 이것도 동일한 형식이 적용되어 변이된 예이다.

한국어에서는 이런 첨가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지만 중국어에서는 그런 현상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 또한 중 한 언어의 음운론적 특징에 의하여 결정된다. 중국어의 음절을 본다면 성모(聲母)¹⁴⁾로 나뉘어져 있으면서 운모는 모음 또는 모음과 자음으로 결합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분리

14) 성모(聲母) 중국어의 음절은 성모와 운모(韻母)가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성조(聲調)가 이루어져서 성립된다. 현대 베이징어[北京語]의 ‘长(長) cháng’은 [č aŋ2]으로 해석되며, 그 성모는 [č], 운모는 [aŋ]이며, 그 위에 성조[二聲]가 추가된다. 또한, ‘马(馬)’의 성모는 [m]이다. 《운경(韻鏡)》의 36자모(字母)는 중고음(中古音) 성모의 체계(體系)를 거의 대표한다.

할 수도 첨가 할 수도 없다. 가령 첨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완전히 변하게 된다. 예를 들면“jia”에“na”를 첨가하여“jiang”을 이룬다 하더라도 원래의 의미와 완전히 다르게 된다. 한국어는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뉘어져 있으면서 이것을 분리시킬 수 있고 종성(즉 받침)을 생략 첨가 할 수 있다. 이것 또한 컴퓨터 입력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종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위의 예처럼 한층 더 잘 표현 할 수 있다.

<표9> 동일한 형식으로 변이된 예

통신어휘	의미
초딩	초등학생
중딩, 중딩어, 중뎡	중학생
고딩, 고딩어	고등학생
대딩	대학생
직딩	직장인
노딩	나이가 많은 사람

위의 예에 든 어휘는 그 형태가 ‘~딩’의 형태를 취하는데, 이것은 ‘고등학생→고등→고딩’의 변화과정을 거친 후 초등학생, 중등학생의 경우에는 그 대로 적용이 된 것이고, 대학생과 직장인의 경우에는 ‘앞 글자+딩’의 형태를 취하면서 유사성을 드러내고 있다. ‘딩’은 ‘등’의 변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또 다른 해석으로는 영어의 ‘~ing’가 결합되면서(고등+ing) 진행형으로 고등학교(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직장)에 다니는 중임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 통신어휘는 사용상의 편리를 가장 많이 추구하게 되므로 의도적으로 영어식 표현을 결합하여 어휘를 만들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컴퓨터의 자판을 보면 ‘등’의 ‘ㄷ’는 아래글쇠에 ‘딩’의 ‘ㄴ’는 기본글쇠에 있어 손가락을 이동하지 않고 어휘를 입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어 ‘등→딩’의 견해가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고딩어’는 어형이 유사하여 고등학생을 의미하는 은어로 사용되는 ‘고등어’가 동일한 형식으로 변이된 예이며 ‘중딩어’는 ‘고딩어’에서 유추된 것이다. ‘중평’은 ‘중딩’의 어감을 강하게 하여 변이시킨 것이다.

(2) 소결

인터넷 통신어휘는 형태와 의미에서 변이가 나타난다. 의미변이보다 형태변이가 더 많이 나타나도 있는데, 통신언어가 음성언어를 문자화한 것이기 때문에 맞춤법에 맞는 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을 그대로 표기하여 형태변이가 많이 나타난다.

의미변이는 명사, 수사, 용언에서 나타나는데, 명사는 의미가 고정된 고유명사나 다른 말과 어울려야 하는 의존명사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일반명사에 한정되어 의미변이가 나타난다. 수사는 한글 수사의 경우 의미변이가 나타나지 않고, 아라비아 숫자에서 의미변이가 나타난다. 주로 비슷한 음의 음절을 대체한다.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지 않고 의미변이가 나타난다.

형태변이는 모든 범주에서 나타나 통신언어가 형태변이 위주의 언어라는 것을 알게 해 준다. 명사에서는 음절이나 음소의 축약, 음소 첨가, 음소 변이가 나타나고, 대명사는 축약 현상이 적고 조사와 어울려 형태변이가 나타난다. 수사는 형태변이가 거의 없고 한글 수사보다 입력이 간편한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아라비아 숫자의 경우 형태가 고정되어 형태변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용언은 어간만 형태변이 되거나 어미와 어울려 형태변이가 나타난다. 주로 음성표기에 의한 연철과 음소나 음절의 축약이 나타난다. 관형사나 부사도 형태변이만 나타나는데 주로 음소의 생략이나 첨가, 축약이 나타난다.

부사의 경우 의성어와 의태어가 많이 사용되고, 변이형도 다양하게 파생되어 있다. 감탄사도 의성어나 의태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표기가 나타난다.

조사의 경우 축약이 거의 없으며, 음소변이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어미는 음절이나 음소의 축약도 나타나고 음소 변이도 나타난다. 조사나 어미는 주로 체언이나 어간과 어울려 변이되어 다른 범주에 포함되기도 한다.

문장부호의 경우 동일한 문장부호의 중복 표기가 많이 나타나고, 줄임표와 줄표가 많이 사용된다. 비 문자언어 사용은 통신언어가 형태적으로 일반 언어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이다. 비 문자언어는 주로 이모티콘이 많이 사용되며, 전자게시판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그림문자의 사용도 늘어나고 있다.

어휘 분석을 통해 통신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음절보다는 음소를 생략하거나 변이시키고 있다. 음소변이는 자음보다는 모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자음에서 음소 생략은 주로 음가가 없이 표기상 사용되는 ‘ㅇ’이 주를 이루며, 음소변이는 ‘ㅈ→ㄷ’의 역구개음화가 나타난다.

모음의 음소 생략은 주로 ‘ㅣ’와 ‘ㅡ’가 많이 생략되는데 다른 모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음가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모음과 어울려 합쳐지거나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모음 음소 변이는 ‘ㅛ→ㅟ’, ‘ㅣ→ㅑ’ 변이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ㅛ→ㅟ’는 존칭어미 ‘-요→-여’에서 주로 나타난다. 상대에 대한 사회적 정보의 부재에 따른 두루높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원순모음보다 발음하기 편하게 비 원순모음을 사용하는 것이다. 더불어 원순모음보다 발음이 편하게 비 원순모음을 사용하는 것이다. ‘ㅣ→ㅑ’는 초성이 ‘ㄱ, ㅋ, ㆁ, ㄷ, ㅌ, ㄴ’일 때 나타나는데 단모음을 이중모음으로,

비 원순모음을 원순모음으로 만들어 모음강화를 통해 완곡한 강조를 나타내고 있다. 모음 변이는 모음조화가 나타나는 단어에서는 모음조화에 역행하는 변이로 모음조화가 되지 않은 단어에서는 모음조화를 이루는 변이로도 나타난다.

두 번째, 음성언어를 맞춤법을 고려하지 않고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하는 음성표기가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연철표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통신언어가 일반 언어의 음성대화를 컴퓨터 통신에서 문자로 바뀐 것이어서 음성표기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한글이 표음문자이기 때문에 소리를 그대로 문자화할 수 있다는 문자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세 번째, 음소 첨가로 의미 강조가 나타나고 있다.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첨가되는 음소는 주로 자음이다. 모음의 경우 의미강조를 위해서는 ‘ㅣ → ㅓ’처럼 단모음을 이중모음으로 바꾸고 있다. 자음에서도 주로 첨가되는 음소는 ‘ㄷ, ㄹ, ㅁ, ㅂ, ㅇ, ㅎ’이다. 이 음소들은 주로 음절의 종성에 사용되어 의미전달을 보조하고 있다. ‘ㄷ, ㅂ, ㅎ’은 발음을 강화하고, ‘ㄹ, ㅇ’은 발음을 유화시키고 있다. 발음이 유화되거나 강화되는 것은 발음에 변화를 주어 일반적인 음과 차별되어 상대적으로 강조가 되는 것이다.

초성이 된소리로 변이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인데 초성의 된소리를 표기상 동일한 자음이 겹쳤을 뿐이지 실제 음은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소 첨가는 아니나 초성이 된소리가 되는 것도 의미 강조를 위해서다.

통신언어에서 자음의 첨가나 된소리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일반 언어 음성대화에서 의미구별의 징표가 될 수 있는 음색, 음감, 성량 등이 문자로 표기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태를 변이시켜 의미전달의 보조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2) 중국 인터넷 통신언어 현상의 분석

통신언어 어휘의 특징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다. 표기 편리보다 발음 편리를 위주로 한다. 일반 언어 대화가 음성으로 청각적 차이에 의해 의미를 구별한다면, 통신언어는 시각적 효과로 의미의 차이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문자가 시각적 즉, 형태의 차이에 의해 의미 구별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인터넷 통신언어는 형태의 차이에 의해 청각적 효과를 주고 있다. 일반 언어 대화가 음성에 의한 청각적 효과라면 인터넷 통신언어는 문자에 의한 청각적 효과를 나타내는 언어이다. 여기에 표음적 표기체계를 사용하는 한글은 청각적 효과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통신에서 형태변이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

한국 인터넷 통신언어 보다 중국 인터넷 통신언어가 전통 문화적 요소를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다르게 나타난다. 바로 품사성과 어순의 변이의 특성이다. 중국 인터넷 통신언어에서는 영어 외래어나 홍콩(광주 등 같은 방언), 대만의 방언 등의 영향을 받아 규범을 벗어난 품사성의 전환과 어순의 변이 현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다문화적 각도에서 볼 때, 중국어는 고립어이므로 단어 자체의 어형의 굴절 변화가 풍부한 굴절어와는 달리 형태상 명확한 품사 표지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그 단어가 문장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근거하여 품사를 겸하거나 품사성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표지를 붙여 품사를 전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단순한 품사 전환이라기보다는 규범적 품사성을 벗어난 오용, 변이 형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명사의 동사화에 대해서 중국어 인터넷 통신 언어 중에 명사가 술어로 사용되어 목적어를 수반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别忘了伊妹儿我!”, “你雅虎了嗎?” 등이다. 원래 중국어에서는 명사가 직접 술어로 사용되거나

목적어를 수반할 수 없다. 하지만 영어의 영향으로, “Don’t forget to e-mail me”, “Do you Yahoo?” 등의 영어 문장을 직접 번역한 것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특히 ‘雅虎*yahu* ’는 Yahoo 사이트의 중국어 명칭으로 전형적인 명사이지만, 네티즌들이 영어를 모방하여 동사로 사용하게 되고, 약정속성의 과정을 거쳐 대중들의 공인을 얻게 된 것이다. 또한 한 문장 안에 동사 없이 명사로만 구성된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 你叫什么名子(字의 오자)

ni jiao shen me ming zi

(너 이름이 뭐니?)

B: 我网民

wo wang min

(나 네티즌)

A: 你在那 (哪의 오자)

ni zai na

(너 어디 있니?)

B: 我网吧

wo wang ba

(나 PC방)

A: 你干什么的

ni gan shenme de

(너 뭐 하는 사람이야?)

B: 我干工作的

wo gan gong zuo de

(나 일하는 사람이지)

타자 속도를 줄이고 간결하고 생동감 있는 문장을 위하여, 혹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진짜 신분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문장을 종종 사용하는데, 통상적인 어법 규범에서는 어긋나나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고 의미를 명백히 알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중국 인터넷 통신언어 중에서 형용사의 동사화가 또 다른 특징이다. 중국어 문법에서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목적어를 수반할 수 없고, 피동 구조에서 사용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그러나 각 통신 매체뿐 아니라 인터넷 통신언어에서 이러한 용법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 美國五角大樓被黑.

(미국 펜타곤에 해킹을 당했다)

B: 一旦被黑, 不要輕易放棄, 什麼手段都應用一下.”

(일단 해킹 당하면, 쉽게 포기하지 말고, 무슨 방법이라도 다 써봐야지)
위의 예에서 ‘黑hei’는 해커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써서 타인의 인터넷 사이트 혹은 컴퓨터 체계를 공격하는 것으로 모두 피동구에 사용되었다. 중국어 문법에서 일반적으로 ‘被’+동사의 구조로 피동구를 이루므로, 이 용법에서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로 전환되어진 것이다.

‘~ 的說’ 식의 결미(結尾)

인터넷상에서 동사 뒤 혹은 완전한 문장 뒤에 ‘~ 的說’를 붙이는데, 어떤 실제적 의미는 없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吃飯的說”

(밥 먹으세요)

“但偶我還是很喜歡那門老先生的課的說”

(그러나 난 아직도 노선생님의 과목을 좋아해)

“偶見到泥真高興的說”

(만나서 정말 기뻐)

“沒的說”

(문제가 없다)

인터넷 통신문화에는 새로 받아들인 문화와 고유의 전통 문화가 어우러진 다양한 문화적 특성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인터넷 통신언어는 다원적 문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인들의 해음 문화에 기초를 둔 것으로, 전통적으로 즐겨 사용되었던 일종의 표현 방식이다. 중국어의 해음은 형식면에서는 중국어의 어음 구조에 의해 결정되고, 내용 면에서는 중국인들의 전통 사상 및 민족 심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형성된 ‘해음 쌍관 수사법’을 일상적인 대화에서 뿐 아니라 사회를 풍자하는 유머, 민간 속어, 수수께끼, 상성(相聲) 등의 각종 설창 문예, 민간 풍속과 관련된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행위 및 물건, 지명, 인명, 음역 외래어, 방언의 반영, 시가 및 헨후어¹⁵⁾, 피휘어¹⁶⁾, 욕설 등에서, 완곡

15) 헨후어(愼后語)란 앞부분만 말하고 결론을 대담하게 생략하는 일종의 수수께끼같은 속담이다. 가령 “장얼허샹(키가 1장2척이나 되는 스님)”이라고 하면, “모부자오터우나오(그의 까까머리를 만져볼 수 없다)”라는 말을 생략하더라도 이 헨후어의 뜻은 “내막을 도무지 알 수 없다”가 된다. 할 말을 다 해버리거나 갈 때까지 다 가버리는 대신 말머리만 던져놓는 것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에 헨후어의 비 갠 뒤 갑작스런 상쾌함같은 매력이 있다.

16) 피휘어(避諱語)는 고대 중국에서 군주나 자신의 조상의 이름에 쓰인 글자를 사용하지 않는 관습이다.
예:진시황이 황(皇)자와 고(辜, 흉이나 잘못을 뜻한다.)자의 모양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고(辜)를 죄(罪)로 바꾸었다.
진시황의 이름 정(政)자를 피하려고 정월(正月)을 단월(端月)이라 고쳐 불렀다.
한나라 경제의 이름이 유계(劉啓)였기 때문에 계(啓)자를 쓰지 않기 위해 이십사절기 가운데 계칩(啓蟄)을 경칩(驚蟄)으로 바꾸었다.
한나라 명제의 이름이 유장(劉莊)이었기 때문에 장(莊)을 뜻이 같은 엄(嚴)으로 고쳤다.
삼국시대 위나라에서는 황제의 이름이 조황(曹璜)에서 조환(曹奐)으로 바뀌었다. ‘황’(璜)이라는 글자가 많은 사람

하고 상징적, 심미적, 해학적인 표현 방식으로서 언어적 표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해음은 이미 중요한 문화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중국 인터넷 통신언어의 해음 역시 전통적인 해음 문화와 분리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원래의 문자를 대표하는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 역시 중국과 영어 사용 국가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단어 구성을 간략화 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인터넷 상에서 주로 통용되는 숫자는 '2'('to'를 대표), '4'('for'를 대표) 등으로 중국의 전통적인 문화적 의미 보다는 영어 국가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숫자에 길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전통적인 숫자 문화를 바탕으로 숫자 해음, 회의와 연상 등 숫자 기호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축약 역시 현대의 빠른 생활 리듬 때문에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언어의 역사 발전 과정에서 형성된 보편적 언어 현상이다. 중국어에서도 매우 오래 전부터 축약 현상이 나타났는데, 음소 축약(예를 들면 之於, 之乎一諸, '何不一盍' 등의 합음사), 형태소를 기초로 한 축약 (예를 들

들이 쓰는 글자라, 어쩔 수 없이 황제가 변경한 것이다.

당나라 고조의 부친이 이병(李昞)이었다. 그 이름을 피하려고 육십간지에서 병(丙)을 모두 경(京)으로 바꿔야 했다.

당나라 태종 이세민(李世民)의 성씨 이(李)와 소리가 같은 이(鯉)가 뜻하는 "잉어"를 먹지 못하게 되었고, 글로 쓰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잉어를 이(鯉) 대신에 적선공(赤鮮公, 붉은 물고기님)이라고 고쳐 썼다. 또한 이름자 세(世)를 피하려고 대(代)자로 바꿔 썼다. 예를 들면 절세가인(絕世佳人)을 절대佳人(絕代佳人)으로 바꾸었다. 역사서 수서(隋書)를 편찬할 때 왕세충(王世充)을 왕충(王充)이라고 세(世)자를 공백으로 남겨 놓았고, 이 탓에 전한의 왕충(王充)과 혼동하는 사람이 많았다. 또한 이세적(李世勣)도 이적(李勣)이라고 바꾸어 기록했다.

송나라 휘종은 용(龍), 천(天), 군(君), 옥(玉), 제(帝), 상(上), 성(聖), 황(皇)의 여덟 자로 이름이나 자호를 짓지 못하게 하고, 이미 지은 이름과 자호도 고치게 하였다.

금나라 때에는 주공과 공자의 이름을 피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청나라 때에는 강희제의 이름인 현엽(玄燁)을 피해 북경 자금성의 북문인 현무문(玄武門)을 신무문(神武門)으로 바꾸었다.

1777년 청나라에서 왕석후(王錫侯)라는 학자가 건륭제의 이름을 책에 써서 본인을 포함해 수십 명의 관련된 사람이 처형당한 경우가 있다.

면 ‘老子莊子－老莊’, ‘大型巴士－大巴’등), 비형태소를 기초를 한 축약(예를 들면 ‘佛陀－佛’, ‘卡路里－卡’등), 중심어, 한정어 등 상위어를 단위를 한 축약(예를 들면 ‘中華人民共和國－中國’, ‘北京大學－北大’등), 공통 항목 축약(예를 들면 ‘上水道下水道－上下水道’, ‘祖父祖母－祖父母’등)등 다양한 형태의 축약 형식을 사용해 왔다. 따라서 인터넷 통신 언어에 나타난 축약어 역시 이러한 축약 형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다.

다음은 서양 문화의 영향이다. 개척 개방 이래 서양 문화의 영향이 점차 커짐에 따라 언어에 있어서도 ‘외국어 열풍(洋文熱)’이 일어났다. 외래어 특히 전문 기술 용어를 번역할 때, 주로 외국어 자모를 사용한 축약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는데, 갈수록 생활의 리듬이 빨라져 언어생활에서도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원칙이 강조되고, 거기에 외국어 열풍, 특히 강세 방언으로서의 홍콩어에 대한 모방이 더해져, 일상생활에서도 외래어 및 자모를 이용한 축약어의 사용이 점차 증가 되었다. 또한 언어의 구성 요소 중 외국어의 영향에 대해 가장 저항적인 부분인 문법도 빈번한 언어 간의 접촉을 통해 영어 문법적 요소의 영향을 받은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국 인터넷 통신 언어는 전통 문화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외래어, 홍콩 및 대만 지역 방언, 지방 방언 등과 같은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뒤섞여 있으므로, 다원적 문화 현상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인터넷 통신언어의 어음 방면에서 변이는 주로 해음을 이용한 단어에 나타난다. 언어란 음과 의미가 결합된 기호 체계인데, 동음이의(同音異意), 이음동의(異音同意), 일음다의(一音多意), 일음일의(一音一意) 등 음과 의미의 결합은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이러한 음과 의미의 결합 관계를 이용한 것이 해음 변이로, 원래의 글자 혹은 단어의 독음을 모사하여 원래의 글자 혹은 단어의 독음과 서로 같거나 유사한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¹⁷⁾. 해음은 중국 인터넷 통신언어의 어휘를 구성하는 방식에 주로 사용

되므로 어휘의 변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중국어의 어음 구조를 기반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어음 변이의 범주에서 연구해 보려는 것이다. 해음어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형식으로 구분 된다.

(1) 영어 해음

서로 해음이 되는 영어 자모로 영어 단어나 문장을 대체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U - you(너)
- Ur - your(너의)
- R - are(~이다)
- HRU - How are you(안녕하세요)
- CU - see you(안녕)
- IC - I see(알았어)
- C-YA - See You Again(다시 만나자, 해음과 축약의 혼합)
- ICQ - I seek you(가장 먼저 나온 인터넷 무선 호출 프로그램 이름으로, QQ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함)

(2) 중국어 해음

중국 문자는 음과 의미의 결합체인데, 음은 같으나 의미가 다른 글자가 매우 많다, 인터넷에서 한자를 입력할 때 한어 병음 입력 체계를 이용하는데, 이 체계 안의 글자 대부분은 사용 빈도에 따라 배열된 글자가 아니다. 따라서 한자를 입력할 때, 병음 입력 체계 안에서 원하는 글자나 단어의 배열이 비교적 뒤에 있을 경우 앞에 나타난 해음어로 원래의 글자나 단어

17) 馮廣藝 『中國網絡語言與諧音文化』 책 참조

를 대체하게 되는 것이다. 즉 분초를 다투는 인터넷 교류 상에서 네티즌들은 타자의 정확성을 보장할 만큼의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보통화 혹은 방언 중의 같은 음, 비슷한 음, 때로는 전혀 비슷하지 않은 음 등을 이용하여 수많은 해음어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들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어 오래 사용되고 공인을 받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신조어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해음어는 중국 인터넷 통신언어의 단어 구성방식 중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인터넷상의 통용과 가차(通假字)’¹⁸⁾라고 볼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단지 신속성과 편리를 추구하기 위해 다른 동음사들을 일일이 돌볼 겨를 없이 앞에 배열된 글자를 선택한 결과 나타난 일종의 ‘오자(錯別字)’¹⁹⁾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중국어는 한국어처럼 표음문자가 아니라 표의문자이기 때문에 발음대로 적는 현상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대신에 해음현상이 존재한다. 해음이란 같거나 비슷한 발음을 이용하여 형식이 부동한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중국어의 특징 중의 하나는 하나의 글자는 음과 뜻의 결합체인 것이다. 하지만 통신언어에서는 단어의 뜻과 관계없이 음만 따오는 경우가 아주 많다. 이런 경우에는 중국어의 본래의 특징과는 달리 새롭고 독특한 느낌을 주게 된다.

예

美眉(妹妹)(meimei)-예쁜아가씨 暗了(anle)- 暗戀(anlian)몰래
 좋아하다
 斑竹-版主(banzhu)- 대화방이나 전자 게시판의 관리자, 시삽
 木油(muyou)-沒有(meiyou)(방언) 없다 偶(ou)- 我(wo)-나

18) 牛光夏, 谷瑞麗 『網絡上通假字』 논문 참조.

19) 劉海燕 『網絡語言的錯別字現象』(2002) 책, p.105

大蝦－大俠(daxia) -인터넷고수
 油墨－幽默(youmo)-유머
 竹叶－主頁(zhuye)- 홈페이지
 果醬－過獎 (guojiang)- 칭찬하지마
 伊妹儿(英文爲E-mail)-전자우편
 稀飯(xifan)－ 喜歡(xihuan)-좋아하다

板油－版友(banyou)-채팅 친구
 油箱 (幽香)－郵箱(youxiang)-우편함
 粉絲 (英文爲fans)－팬
 米國(miguo)－美國(meiguo)미국
 偶來樂－ 我來了(wolaile)-나와다

등이 있다.

그 중에서 보면 쌍관해음 (雙關諧音) 이 아주 많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大蝦”(daxia)는 “大俠”(daxia)와 비슷한 음을 갖고 있으면서 한 개의 단어로 두 개 뜻을 나타내고 있다. 즉 매일 인터넷 속에만 잠겨 있어 허리가 굽혀져 새우 같다고 비유하는 동시에 또 인터넷고수가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의 일에 발 벗고 나서는 술선수범이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여기서 보면 중국 통신언어에서 많은 단어는 그 뜻을 외면하고 음이 같은 글자로 대치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한자(漢字)입력법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병음(拼音)²⁰⁾입력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서 채팅은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데다가 병음을 입력하고 거기서 맞는 글자를 선택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앞에 나타나는 글자 혹은 자동적으로 선택된 글자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후에는 이런 단어들이 개성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통신언어에서 사용하는 특수한 어휘로 변했다.

일반적으로 중국어 중에 비교적 고정적으로 사용되는 해음어는 내용상

20) 병음(拼音):1958년 중국에서 공포(公布), 실시되었다. 정식으로는 한어(漢語) 병음자모라고 한다. 종래의 주음자모(注音字母)나 웨이드식(式) 로마자 대신으로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 영어의 알파벳과 같이 26문자이다.

중국인들의 전통 사상, 풍속 습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인터넷 통신 언어 중에 나타나는 해음어들은 해음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신조어로서 비교적 고정적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민족 문화와 관련된 요소들보다는 주로 인터넷상의 의사소통의 수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비록 이들이 원래의 단어들과 ‘인터넷상에서의 동의어’관계이지만, 이 때 해음에 사용된 한자들은 중국어의 발음에 근거한 것으로 단지 음절에만 영향을 주었지 단어의 의미와는 별로 관계가 없으며, 또한 표현상 해학적으로 함축적이며 완곡한 느낌을 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인터넷 통신 언어 중의 중국어 해음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斑竹 (혹은 班主, 版猪, 版竹)*ban zhu*

. ‘版主’와 동음으로 ‘대화방이나 전자 게시판의 관리자, 시삽’의 뜻. 특히 ‘斑竹’는 ‘湘妃竹’를 연상시켜 중국의 전통 문화적 색채를 띠므로, 더욱 쉽게 받아들여짐.

· 大蝦 - ‘大俠’*da xia*와 동음으로 ‘인터넷 고수’의 뜻.

· 密馬 - ‘密碼’*mi ma*와 동음으로 ‘비밀 번호’의 뜻.

· 油墨 - ‘幽默’*you mo*와 동음으로 ‘유머’의 뜻.

· 下崽 - ‘下載’*xia zai*와 동음으로 ‘다운로드’의 뜻.

· 菌男 - ‘俊男’*jun nan*과 동음으로 ‘멋진 남자’의 뜻(‘균을 가진 남자’를 뜻하기도 함).

· 霉女 - ‘美女’*mei nv*와 동음으로 ‘미녀’의 뜻(‘곰팡이가 있는 여자’를 뜻하기도 함).

· 气死我樂 - ‘气死我了’*qi si wo le*와 동음으로 ‘열받아 죽겠네’의 뜻(열을 받았지만 즐겁게 생각한다는 해학적 의미도 있음).

· 竹叶 - ‘主頁’*zhu ye*와 동음으로 ‘홈페이지’의 뜻(대나무 잎으로 장식된

홈페이지를 연상하게 함).

· 幽香 - ‘郵箱’*you xiang*과 동음으로 ‘우편함’의 뜻(‘그윽한 향기’를 뜻하기도 함).

· 馨香 - ‘信箱’*xin xiang*과 동음으로 ‘편지함’의 뜻(‘그윽한 향기’를 뜻하기도 함).

· 米國 - ‘美國’*mi guo 혹은 mei guo *과 동음으로 ‘미국’의 뜻.

· 點心局 - ‘電信局’*dian xin ju*과 동음으로 ‘전신국’의 뜻.

· 粉發涂強 - ‘奮發圖強’*fen fa tu qiang*과 동음으로 ‘분발하여 국가의 부가를 꾀함’의 뜻.

· 你才-‘你猜’*ni cai*와 동음으로 ‘알아맞혀 봐’의 뜻.

또한 외래어를 번역할 때 중국어 중에 영어 단어를 나타내는 표준적인 단어가 있지만, 해음어로 대체하여 유머와 해학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烘培机*hong pei ji* - ‘homepage’와 동음으로 ‘홈페이지(主頁)’의 뜻.

· 伊妹儿*yi mei er* - ‘E-mail’과 동음으로 ‘전자우편(電子郵件)’의 뜻.
(‘그의 여동생’을 뜻하기도 함)

· 当 혹은 蕩*dang* - ‘download’의 앞부분의 영어 발음을 취하여 간략화시킨 것으로, 원래 단어는 ‘下載’

· 貓*mao* - ‘modem’의 속칭으로 앞부분의 영어발음을 취하여 중국어 습관대로 발음한 것. 원래의 단어는 ‘調制解調器’

유머가 있는 중국어 해음어를 사용하여 외래어를 번역한 예는 다음과 같다.

- ‘瘟到死’ *wen dao si* - ‘windows’와 동음으로 컴퓨터가 역병처럼 전파가 빠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강한 풍자적 색채를 띤 것임.
- ‘愛老虎油’ *ai lao hu you* - ‘I love U’와 동음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의 뜻.
- ‘笨三’ *ben san* - ‘Pentium III’와 동음.
- ‘稻糠畝’ *dao kang mu* - ‘dot com(.com)’과 동음.
- ‘馬屁三’ *ma pi san* - ‘MP3’와 동음.

(3) 숫자 해음

현대의 정보화 시대는 ‘숫자화’된 사회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네티즌들은 숫자를 사용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게 생각과 감정을 전달한다. 숫자 해음어는 아라비아 숫자를 서사 기호로 삼아 보통의 단어와 같은 방법으로 해음화하여 만든 특수 단어이다. 즉 숫자 형식을 차용하되 숫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기호와 소리간의 관계만 남아 전통 언어 중의 음절에 투사되어 숫자 해음을 이루고, 그것이 상응하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현재의 정황에서 볼 때 숫자 해음어는 내용을 나타내는데 비교적 한계가 있다. 중국 인터넷 통신 언어 중의 숫자 해음어는 대체로 세 가지 종류로 귀납되어진다.

첫째, 인사어

- 88 - ‘拜拜’ 혹은 886 = ‘拜拜嘍’(‘안녕’의 뜻)
- 687 - ‘對不起’ 혹은 587 - ‘我抱歉’(‘미안합니다’의 뜻)
- 3166 - ‘沙要娜拉’ (일본어 ‘안녕’의 음역)

둘째, 간단한 일상 용어

- 184 - ‘一輩子’(‘한평생’의 뜻)
- 9494 - ‘就是就是’(‘바로 그거야’의 뜻)
- 3344 - ‘生生世世’(‘대대손손’의 뜻)
- 7451 - ‘气死我了’(‘열받아 죽겠네’의 뜻)
- 8147 - ‘不要生气’(‘화내지마’의 뜻)
- 847 - ‘別生气’(‘화내지마’의 뜻)
- 56 - ‘无聊’(‘심심하다, 재미없다’의 뜻)
- 56856 - ‘无聊不无聊’(‘심심하니?, 너무 재미없어요’의 뜻)
- 987 - ‘就不去,就不去’(‘절대 안 갈거다’의 뜻)
- 4242 - ‘是啊是啊’(‘그래 그래’의 뜻)
- 55555 - ‘嗚嗚’와 동음 혹은 의성어로 몇 개의 ‘5’자를 써서 사람이 울 때 내는 소리를 대표함.
- 14 - ‘意思’(예를 들면 ‘14, 1414’)
- 526 - ‘我餓了’(‘배고프다’의 뜻)
- 596 - ‘我走了’(‘간다’의 뜻)
- 5871 - ‘我不介意’(‘개의치 않는다’의 뜻)
- 1573 - ‘一往情深’(‘정미 아주 깊다’의 뜻)

셋째, 애정을 표현하는 말

- 520 - ‘我愛你’(당신을 사랑합니다)
- 530 - ‘我想你’(당신이 그립습니다)
- 360 - ‘想念你’(당신이 그립습니다)
- 7718 - ‘親親你吧’(입맞춰 줄게요)

- 5201314 - ‘我愛你一生一世’(당신을 평생토록 사랑합니다)
- 53770 - ‘我想親親你’(당신과 입맞추고 싶어요)

원래 전통적인 중국 문화에서는 숫자가 바로 일종의 문화로 해음은 일련의 숫자 문화와 관련되어 있으나(예를 들면 ‘四’는 ‘死’와 해음이므로 혐오하고 쓰기를 꺼리며, ‘八’은 월(粵) 방언 중에 ‘發’와 해음이고 ‘九’는 ‘久’와 해음이므로 모두 길상을 나타냄), 인터넷 통신 언어에서는 그와 같은 문화적 의미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9494’는 ‘長久’ 혹은 ‘死’와는 무관하게 단지 찬성, 긍정의 태도를 나타내고, ‘88’ 역시 ‘發財(돈을 벌다)’와 무관하게 ‘헤어짐’을 나타낸다. 또한 해음에 사용되는 숫자가 한자와 반드시 대응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520’의 ‘5’는 ‘我’의 해음으로 쓰였지만 ‘5555’에서는 ‘鳴**wu**와 해음으로 다르게 쓰인 것이다. 또한 ‘886’과 ‘3166’ 중의 ‘6’도 해음되는 글자가 서로 다르게 쓰인 것이다. 따라서 중국 인터넷 통신 언어 중의 숫자 해음어는 대략적인 해음어이지, 전통적인 숫자 해음어에서 1:1 대응 관계인 것처럼 숫자와 한자로 대표되는 음절이 반드시 1:1 대응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터넷 세계에서는 마치 약정속성에 의한 것처럼 이미 수많은 네티즌들의 인가를 얻어 사용되므로,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4) 혼합 해음

영어, 중국어, 숫자의 해음 방법과 축약법이 혼합되어 뒤섞여 있는 것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와 숫자 해음의 혼합

· 瘟酒屋 - 'Windows 95'와 동음이며, 여기서 특히 '酒屋'는 '95'와 동음으로 '술집'을 뜻하기도 함.

· 瘟酒吧 - 'Window 98'과 동음이며, 여기서 특히 '酒吧'는 '98'과 동음으로 '술을 마시는 바(bar)'를 뜻하기도 함.

둘째, 영어 축약과 숫자 해음의 혼합

- F2F - 'face to face'(숫자와 자모의 혼합)
- 3KS - 'Thank you'(숫자와 자모의 혼합)
- B4 - 'before'(숫자와 자모의 혼합)

이와 같은 해음은 매우 복잡한 것으로, 자모를 원래의 음으로 읽어야 하는지 아니면 한어 병음으로 읽어야 하는지, 숫자를 중국어로 읽어야 하는지 아니면 영어로 읽어야 하는지 등의 규정은 없다. 따라서 단지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약정속성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 방언 해음

중국 인터넷 통신언어 중에는 지방 방언도 있고 또한 경성이 없는 대만 국어의 용법, 홍콩 월(粵)방언의 서면 형태 등도 찾아볼 수 있다. 방언 해음을 이용하는 것은 상대방 역시 같은 방언 지역 출신일 때 상대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인 경우도 있고, 때로는 개성이나 재미를 드러내기 위해서인 경우도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偶-'我' (나.예를 들면 '偶也一樣')

- 泥-‘你’(당신)
- 粉-‘很’(매우.예를들면‘我粉好’)
- 灰常-‘非常’(대단히 예를 들면 ‘灰常想念’)
- 醬紫-‘這樣子’(이렇다)가 합성된 합음 혼합어
- 奏是-‘就是’(바로)
- 美眉-‘妹妹’(여동생)
- 迪迪-‘弟弟’(남동생)
- 墨迹-‘磨嘰’(북방 방언 잔소리 뜻)

위의 예에서 ‘美眉’는 홍콩 어투를 나타낸 것이고, ‘偶’ ‘泥’ ‘醬紫’ ‘迪迪’ 등은 모두 대만의 고산주(高山族) 방언을 매우 적절하게 형용한 것이다. 또한 ‘墨迹’는 북방 방언으로, 어떤 사람들은 ‘moji’라고 쓰기도 한다.

(6) 축약어

축약어는 축약과 개조를 통하여 단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접촉한 순간 즉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정보를 언어 기호로 압축한 것인데, 각 단어의 첫 글자의 자모 혹은 형태소를 뽑아내어 ‘압축’시킨 것이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현대 생활의 리듬 속에서 단어의 음절이 너무 길면 정보의 신속한 전달에 불편하므로, 사회 변화에 따라 언어도 스스로 조절하게 된다. 즉 가장 경제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언어의 발전 방향이다. 따라서 축약을 통해 만들어진 어휘들은 구조 형식이 간단하지만 의미가 비교적 완전하고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편리하고 신속한 언어 사용 방법의 표준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 만들어진 신조어 중 대부분이 축약어인데, 특히 인터넷 통신언어에서 상당

수를 차지한다. 정보 전달에 분초를 다투고 시간을 금같이 아끼는 인터넷 시대에, 타자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시간을 절약하여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인터넷 통신 언어는 간략화의 경향을 띠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간략화의 경향에 따라 만들어진 중국 인터넷 통신 언어의 축약어에는 영어 축약과 중국어 축약이 포함된다.

중국어의 축약현상을 보면

“ 醬紫－這樣子(zhe+yang+zi) ”, 여기서 “zhe”와 “yang” 결합되면서 반모음“y”앞의 “zh”와 결합하면서 권설음이던 “zh”가 “j”로 변하면서 축약현상을 이루어 “jiang”로 변화되는 것이다.

중국 통신언어의 어휘 중 축약현상으로 나타나있는 단어는 위에 보이는 두 단어 일 뿐이다. 중국 통신언어에서 이루어지는 축약현상은 다만 한 단어의 두 번째 글자가 모음으로 시작하며 앞의 음절과 합쳐지는 것이다. 또한 중국어에서 보면 한국어의 “ㅎㅎㅎ(호호호)”, “ㄱㅅㄱㅅ(감사감사)”처럼 모음의 생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통신언어에서 축약, 생략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통신언어가 문어보다는 구어에 가깝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구어에서는 보다 빠르고 편하게 말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언어를 대화할 때 자주 사용하는데 이것이 통신언어에도 나타나 그대로 표기하는 것이다. 이는 한번이라도 자판을 덜 쳐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려는 의도와 맞춤법에 신경을 쓰지 않고 편하게 쓰려는 의도, 평상시 쓰는 언어와는 좀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① 영어단어를 자모로 축약

이 방법은 인터넷상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으로 사용된 모든 영어 단어의 첫 번째 자모로 구성되며, 대문자 혹은 소문자가 모두 가능하다.

- GF-‘girlfriend’(여자 친구)
- BF-‘boyfriend’(남자 친구)
- VG-‘very good’(매우 좋다)
- BTW-‘by the way’(말이 난 김에)
- PS- 두 가지 의미로 ‘by the way’(말이 난 김에) 혹은 ‘photoshop’(일종의 소프트웨어 이름)
- How au-‘How are you’(안녕하세요)
- FT-‘faint’(졸도하다)
- BS-‘bull shit’(허튼 소리 말아)
- FM-‘follow me’(나를 따라라)
- BB-‘bay-bay’(안녕) 혹은 ‘baby’(보배, 애인, 아이)
- BM-‘boom’(꽁, 쿵하고 폭격하는 소리)
- SM-‘sadism and masochism’(사디즘과 마조히즘)
- SP-‘support’(지지하다)
- LOL-‘laugh out loud’(큰소리로 웃다)
- DL-‘download’(다운로드)
- BRB-‘Be right back’(금방 돌아올게)
- TTYL-‘Talk to you later’(안녕, 나중에 다시 이야기 합시다)
- BBL-‘Be back later’(곧 돌아올게)
- PPL-‘people’(사람들)
- PLZ, PLS-‘please’(부탁합니다)

② 중국어 문장을 단어로 축약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터넷상의 정보 교류에 적합한 네티즌이 되기 위해서 신속한 문자 입력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능이 되었다. 하지만 중국의 한자는 병음화된 자모 문자가 아니라 ‘표의적인 네모 글자’이므로, 타자 속도가 자모 문자만큼 빠르지 않다. 따라서 의미와 감정 전달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문자의 임의로 간략화 시키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어 축약어는 한자 축약어와 한어 병음 축약어로 나누어진다.

한자 축약은 일반적인 축약어와 같이, 원래 단어에서 형태소를 뽑아내어 단어를 만드는 중국어 축약의 규율에 부합되는 것이다.

- 電郵－‘電子郵件’(전자 우편)
- 電玩－‘玩電子遊戲’(전자 오락)
- 私聊－‘私下的一對一聊天’(몰래 1:1로 대화하다)
- 脫光－‘擺脫光棍的生活’(홀아비 생활을 벗어나다)
- 控件－‘控制軟件’(소프트웨어를 통제하다)
- 耗材－‘消耗性的材料’(소모성 자료)

한어 병음 축약은 2장에서 언급한 바 있는 자모사의 일종으로, 단어를 구성하는 형태소마다 첫 번째 음절의 성모를 모아 구성한 것이다. 중국 인터넷 통신 언어중의 자모사는 대부분 과학 기술과 관련된 용어이므로 신속하게 소화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사용 계층이 그다지 광범위하지 않은데, 전문직 기술자 이외에는 대부분 새로운 사물에 대한 관심과 접수 능력이 뛰어난 학생 계층이다. 그들은 대부분 유행을 따르기 위하여 자모사를 받아들였는데, 풍부한 창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외래’ 자모사를 본 뜬 ‘중국식’ 자모사를 만들어 냈으니, 그것이 바로 한어 병음 축약어인 것이다. 즉

한어 병음을 사용하여 영어 축약 형식을 모방한 것이며, 역시 대문자 혹은 소문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상에서 이와 같은 한어 병음 축약어는 주로 호칭 및 명사성 단어에 사용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애칭으로 네티즌들로 하여금 삭막한 가상공간 안에서 남녀노소, 귀천고저를 불문하고 마치 한 가족인 것처럼 따뜻하고 친근하게 느끼도록 해주기 때문에 빈번하게 사용된다. 또한 때로는 욕설 같은 사회적 금기어의 형식으로도 사용되어 함축적 효과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인터넷 교류의 비대면성과 신비성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분노를 발산하고 심리를 조절하는 특별한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③ 호칭 및 명사성 단어

- MM-‘妹妹’ 혹은 ‘美眉’*mei mei*(여동생 혹은 예쁜 여자)
- JJ-‘姐姐’*jie jie*(누나, 언니)
- GG-‘哥哥’*ge ge*(형, 오빠)
- DD-‘弟弟’*di di*(남동생)
- PLMM-‘漂亮美眉’*piao liang mei mei*(예쁜 여자)
- PP-‘漂漂’*piao piao*(漂漂亮亮에서 앞 두 글자를 취한 것)
- XDJM- ‘兄弟姐妹’*xiong di jie mei*(형제자매)
- BL-‘玻璃’*bo li*(유리가 아니라 동성연애를 가리킴)
- RPWT-‘人品問題’*ren pin wen ti*(인격 문제)
- PFPF- ‘佩服佩服’*pei fu pei fu*(정말로 탄복하다,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 BXCM-‘冰雪聰明’*bin xue cong ming*(대단히 총명하다)
- JJWW-‘唧唧歪歪’*ji ji wai wai*(사람들이 말하는 모습을 가리킴)

· GXGX-‘恭喜恭喜’*gong xi gong xi*(축하축하)

욕설

· BT-‘變態’*bian tai*(변태)

· SL-‘色狼’*se lang*(색마)

· BC-‘白痴’*bai chi*(백치)

· BD-‘笨蛋’*ben dan*(바보)

· RY-‘人妖’*ren yao*(요괴,성전환자)

· LM-‘流氓’*liu mang*(건달,불량배)

· YY-‘意淫’*yi yin*(마음 속에 욕정이 타오름)

· PG-‘屁股’*pi gu*(엉덩이)

· MD-‘媽的’*ma de*(욕설)

· TMD-‘他媽的’*ta ma de*(욕설)

· TNND-‘他奶奶的’*ta nai nai de*(욕설)

· SJB-‘神經病’*shen jing bing*(정신병)

· PMP-‘拍馬屁’*pai ma pi*(아첨쟁이)

· MPJ-‘馬屁精’*ma pi jing*(아첨쟁이)

· WBD-‘王八蛋’*wang ba dang*(욕설)

· NQS-‘你去死’*ni qu si*(죽어버려,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욕할 때)2007
년도 중국 에서 유행어

위의 예에서 특히 재미있는 것은 ‘TMD’의 용법인데, 원래 ‘TMD’의 학술
적 해석은 ‘탄도 유도탄 방어 체계’로 ,미국 정부가 대만을 체계 속에 끌어
들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 중국 정부가 단호히 반대하였다. 그러나 사

람들을 놀랍고 신기하게 한 것은 TMD가 공교롭게도 중국의 대표적인 욕인 ‘他媽的*ta ma de*’의 병음 축약과 일치하므로, 더욱 특색 있고 특별한 맛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한어 병음축약이 어떤 영어의 축약과 같은 형태이므로 유머 있고 함축적인 표현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표현 형식의 결합은 의미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으로, 하나의 병음 축약어가 때로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할 수 있으므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 표현의 모호성이 정확한 의사소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어, 의사소통의 효율을 추구하는 인터넷 통신 언어의 원칙과 서로 모순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한어 병음 축약어와 영어 축약어 모두 라틴 자모를 채용하기 때문에, 한어 병음 축약과 영어 축약이 뒤섞여 있는 경우에는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다.

(7) 직접 한어 병음을 사용하는 방법

중국인터넷 통신언어에서 한어 병음의 활용이 활발해졌는데, 주로 도메인 이름이나 텍스트 이름(예를 들면 www.nankaiedu.com, www.freemail.sohu.com 등)혹은 네티즌 개인들의 인터넷상의 별명(예를 들면 liuhaiyan, xhsls4등) 등에서 사용된다. 또한 이메일이나 대화방, 전자 게시판 등에서도 자주 사용되는데, 이는 자판 입력 시에 자판을 두드리는 횟수가 대응하는 한자에 비해 적어서 입력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며, 때로는 일시적으로 한자를 잃어버렸을 때 직접 한어 병음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대체하여 쓸 수 있는 글자가 많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en’으로 ‘嗯’을 대체하고, ‘a’로 ‘他’ 혹은 ‘她’를 대체한다.

(8) 기호를 이용한 글쓰기

이모티콘 (Emoticon)은 감정 (Emotion)과 아이콘 (Icom: 컴퓨터 프로그램 기능표시 형상)의 합성어로 컴퓨터 자판의 문자와 기호, 숫자 등을 적절히 조합해, 미세한 감정이나 특정인물, 직업 등의 의미를 전달하는 사이버 공간 특유의 언어이다. 컴퓨터 키보드자판으로 문자, 기호를 조합하여 간단히 만든 이모티콘을 사용하면 사람의 얼굴표정이나 모습 등을 물론 인종, 인물, 직업, 등을 재치 있게 표현할 수 있다. 인터넷과 컴퓨터통신이 확산되면서 정보시대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그 종류가 2천여가지에 이른다.

두 나라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원인은 4가지이다. 하나는 서양의 측면표정 부호가 가장 먼저 접촉된 영향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키보드는 “^”를 입력이 더 편리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사용하는 키보드에도 “^”가 있지만 한자를 입력하는 상태에서 “^”를 누르면 “.....”로 나타나기 때문에 입력을 영어입력으로 바꿔야 한다. 속도와 경제성을 추구하는 인터넷문화에서 입력을 자주 바꾸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교류의 속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세 번째는 서양은 웃을 때 입 꼬리를 올리는 표정을 중시하는 반면, 한국은 눈웃음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중국어는 표의문자이고 한국어는 표음문자이기 때문에 한국어는 글자입력에서 우세를 차지하게 된다.

아래의 예를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한국 통신언어에서 사용하는 이모티콘

:-) 웃고 있는 모습(옆으로)

一.一zzZZ 쿨쿨...

@.@ 놀라움

^0^ 즐거움

\$\$ 돈에 정신 팔림

(^_^) 기분이 좋거나 행복하다.

(^.^)기분이 좋다.

(-.-) 어딘가 얼빠진 표정

(?.) 모르겠다, 이해안감

(x.x) 너무 아플 때

0:-) 천사

#:-)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

:- (실망(옆얼굴)

:-*= 키스

;-) , ^.< , ^~ 윙크

=.= 졸린 눈

π.π 리얼하게 우는 것

^. 얼굴이 빨개지면서 부끄러워하는 모습

(-_-) 심심해

(--;) 내가 생각해도 한심할 때

(-_-) 뒤집어 누운 모습

(.*) 감격했을 때

:-| 무표정

8-) 안경 쓴 사람의 미소

:-p또는 :^r= 메롱

:-D 하하하

0.0 놀란 눈

T.T 우는 모습

>.< 찡그리기

중국 통신 언어에서 사용하는 이모티콘

^_^=미소

:-D=하하하(너무 기뻐서 입을 크게 열고 웃음)

:-)=침 나오다

8-)=웃는 모습은 같은데 우는 사람의 눈의 크기

;-)=윙크하다(여자 꼬실 때)

:-0 = 놀람 혹은 그렇구나 의 의미

:-)= 매우 크게 놀람

:-o= 무슨 재미있는 일 있어?

|-D= 가벼운 웃음

|-P=박장대소

:-<=슬플 때의 슬픈 웃음

#-)=밤에 잠을 못자서 눈이 풀린 모습

<@_@>=취한모습

:-P=메롱

:-\$=병 걸린 모습

B-)=안경 쓴 사람의 웃음

#:-)=정리안한 머리의 모습

(-_-) =신비한 미소

(:-(=걱정하는 모습

|-) = 졸린 모습 눈은 웃고 있고 잠을 자기 전 빠른 답장을 요구하는 모습

인터넷 통신에서 이렇게 글씨가 아닌 그림으로 나타내는 이유는 그림이 글로 쓰는 것 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자신의 뜻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뜻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뜻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다. 직접 얼굴을 마주대하는 대화는 얼굴표정이나 분위기 또는 어조나 강세 등에 의하여 이면의 뜻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서로 오해하는 일이 적다. 그러나 인터넷 통신에서는 사람을 보지 않고 글로만 상대방을 접하므로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의 상태를 상대방에게 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이나 표정 역시 알 수 없다. 이모티콘은 이러한 미묘한 감정이나 상태 등을 솔직하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리고 이런 그림을 사용하면 화면의 단조로움을 피할 수도 있다.



III 인터넷 통신언어에서 어법파괴 원인

1. 경제적인 원인

인터넷이나 PC통신의 게시판, 대화방, 전자메일, 사이버 일기 상에서 보이는 언어의 변용현상의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경제적인 원인이다. 이것은 문장 안의 단어를 최대한 줄여서 쓰거나, 단어 안에서도 음절을 줄여 사용하는 현상에서 나타난다. 인터넷이 사용되기 이전에는 음성을 전달할 수 있는 전화가 대표적인 통신 수단이었고, 서면을 통한 수단인 편지와 팩스 정도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점차 개인 호출기가 보급되면서 숫자를 통한 의사전달이 필요하게 되어서 간단한 숫자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사용자들의 암호체계가 서서히 만들어졌다. 예를 들면 “8282”는 “빨리빨리”라는 뜻이고, “35351010235”는 “사모사모열렬히사모”라는 뜻이다. 중국어에서 보면 “521”는 “我愛你”를 뜻한다. 이렇게 숫자를 조합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이런 효과는 컴퓨터 통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전의 초기 PC통신에서는 모뎀속도에 따라 매초마다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자판을 치는 속도가 빨라야 함은 물론이고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는 한 불필요한 말들은 생략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초기 PC통신에서 사용되던 언어들에는 짧은 것이 특징이었으며 그것은 문장뿐만 아니라 단어 자체에서도 많은 축약현상을 가져왔다.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라는 인사말을 “안냐세염, 방가여” 등으로 쓰며, 중국어에서는 병음 입력을 사용하면서 거기서 정확한 글자를 선택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일 앞에 나타나는 글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版主”(banzhu)를 입력

하면 프로그램이 묵인하는 “斑竹banzhu”로 대체하고 “主頁zhuye”는 “竹叶zhuye”로 대체한다. 현재 인터넷 상에서도 이러한 용어들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 이는 주로 자판을 치는 속도와 말하는 속도를 통일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2. 사회적인 원인 및 오락적 동기

언어는 사회를 반영한다. 그래서 언어는 그 사회 속에서 생겨나고 성장하며 언젠가는 소멸된다. 인간은 항상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언어는 항상 공유된 행위 규범을 통해 타인들과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언어의 의미를 공유하지 못한다면, 그 언어는 계속 사용될 수 있으며 처음에는 단순한 유행이었을지라도 그 흐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면 그 언어는 전에 있던 말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통신영역에서의 대화 언어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원리가 적용된다. 누군가가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 변용된 통신언어들이 처음에는 생소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화를 할 때, 상대에 대한 나의 반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변용된 언어로 대화를 한다면 그에 상응하기 위해 그러한 통신언어를 쓰고, 오히려 안 쓰면 사이버 공간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통신언어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것뿐 만 아니라 그 사회에 적응하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언어의 사회성은 경제적, 심리적 원인에서 생겨난 말들을 계속해서 써야만 하는 상황을 설명해준다. 즉 처음에 자판의 타수를 줄이기 위해서나 단순한 재미나 개성 있는 표현을 위해서 변용된 언어를 사용했다고 할지라도, 통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화되면서 상호 의사소통을 위해

서 그리고 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런 언어가 계속 쓰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 및 오락 활동이 나타나면서 인터넷의 이용은 일상생활의 의사소통 및 오락 방면에도 반영되어, 인터넷은 이미 오늘날 젊은 세대들의 중요한 소일거리 및 오락의 형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에는 전자 게시판 및 대화방, 개인 홈페이지 및 블로그 운영, 온라인 게임, 인터넷 쇼핑, 인터넷 서적 및 잡지 등의 온라인 출판물(Online Publication), 온라인 TV와 음악 및 영화 감상 등의 온라인 방송, 인터넷 문화 등이 포함된다. 조사 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한 오락 및 여가 활동이 인터넷을 이용한 활동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3. 심리적 해방 동기

1) 개성화를 추구하는 심리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참신성(創新性)과 전통적인 것을 거부하는 역행 심리 이외에도,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개인 중심으로 편향되어진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개성을 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같은 것을 꺼리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이들의 심리는 특히 전 세계적으로 개방된 인터넷이라는 광활한 의사소통의 공간에서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즉 많은 네티즌들이 동시에 교류하는 공간에서는 평범한 일상어를 사용하거나 혹은 신기하고 특이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관심을 집중 시킬 수 가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언어 기호에 대해 축약하고 대체하며 왜곡하기도 하고 자유자재로 변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써서 언어 기호들이 더 직관적으로 사람들의 시각적 경험 세계에 들어가 인지 활동을 촉진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즉

끊임없이 고의로 무엇인가 다양하고 다른 종류의 표현을 개발하여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결과적으로 타인들의 중시를 많이 받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표현적 기능을 갖는 인터넷 통신언어는 이미 네티즌들의 개성의 상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심리적인 원인

사이버 공간은 여타의 매스 미디어 환경과는 다르게 상호 작용이 가능하고 또한 익명성이 보장된다. 또한 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표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정보를 얻고 또 주고자 하는 대중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사이버 공간상에서는 변용된 언어를 사용해도 사회적인 질타를 받지 않는다. 그렇기에 문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을 표현하려는 욕구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또 기존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자신들끼리 통하는 언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신세대들의 심리가 이러한 현상에 반영되기도 한다. 통신에서 비문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의도에는 자신을 남들과 차별화 시키려는 심리적인 의도도 들어 있는 것이다. 즉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신세대들의 개성과 특별한 사람에게는 더 특별하게 자신에게 부담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개입을 꺼리는 신세대들의 심리, 그리고 보다 재미있고 새로운 것을 찾는 그들의 욕구가 그들만의 변용된 언어를 사용하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매번 하는 인사라 할지라도 같은 표현을 하는 것보다 남과는 다른 표현법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려 하고 남들이 쓰지 않은 부호를 만들어서 어떤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글자 대신 기호나 이모티콘 등을 사용하여 보기에 애교스럽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의도도 들어있다. 예를 들면 “웃○ 커버링해요. 그대 내는 그거1

예뻐~요 ^-^*” 라는 문장에서는 “웃어버려요. 그대는 그게 예뻐요.”를 새로운 기호나 이모티콘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주목을 끌 수 있도록 글자 자체를 나름대로 꾸미고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다.

4. 또래 집단 간의 폐쇄성과 언어의 카타르시스

통신언어의 은어 사용은 또래집단 구성원들의 폐쇄성과 관련해 생각하여 볼 수 있다. 대부분 통신용어들이 축약과 탈락에 의한 것이지만, 오히려 통신언어상의 은어가 더 길거나 입력하기 복잡한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통신언어의 가장 큰 속성인 경제성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또래집단의 폐쇄성을 통해 자신들, 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함과 동시에 옆에서 누가 화면을 엿보고 있을지라도 그 내용을 알 수 없게 되므로 통신내용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언어의 파괴현상을 일종의 카타르시스적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프라인인 실제 생활에서 끊임없이 요구되는, 문법에 맞는 공식적인 언어사용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온라인상에서 풀어보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학교, 직장에서는 감히 쓸 수 없는 말들을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마음 놓고 풀어버리는 것이다. 일상에서 머리 아프게 고민했던 복잡하고 애매한 문법을 마음껏 파괴하고 발산함으로써 언어적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5. 유대 강화의 동기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가 많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나이, 직업, 성별, 기호나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려는 경향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가자들은 서로 같은 언어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동지 의식을 갖게 되거나 동질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으며, 나아가 서로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다른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지 않으려고, 때로는 의지와는 거꾸로 의식적으로 규범을 벗어난 인터넷 통신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반해 어른들은 의사소통의 진행 속도가 느림에도 개의치 않고 일상적인 언어 규범에 맞추어 글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역시도 자신들만의 차별성에 바탕을 둔 유대 강화의 동기가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IV. 결 론

인터넷 통신언어는 인터넷 통신에서 사용되는 일반 언어와 구별되는 변이된 언어를 의미한다. 그리고 인터넷 통신 언어와 일반대화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성언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자 언어로 이루어진다. 둘째, 대화 전달이 직접적이지 못하고 컴퓨터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이어서 경제적 원리에 의해 원래 어휘를 변이시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인터넷 통신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살펴보면 일반 언어활동에서 구어와 문어가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과는 달리 구어와 문어의 특징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주로 한중 통신언어의 주요한 특징, 즉 음운론적인 면에서 발음대로 적기, 음절의 축약과 생략, 자모음 첨가와 생략 그리고 어휘론적인 면에서 해음, 약어, 아라비아숫자의 사용, 의성의태어, 기준 단어의 의미 변형, 새말의 탄생, 이모티콘의 사용과 기호를 대조해 보면, 통신언어가 일반 언어보다 “두 배에 가까운 사용률”을 보인다. 또 한중 특유한 언어에 대하여 논술하고 통신언어의 같은 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대비 연구하였다. 그리고 통신언어가 생기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언급해 보았다.

통신언어라는 범주에서 두 나라의 통신언어의 기본적인 특징에서 많은 동일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해음 약어, 아라비아숫자의 빈번한 사용, 의성의태어의 보편화, 기준단어의 의미변형, 새말의 탄생 등에서 같은 점을 보여준다. 이것은 인터넷 통신언어에서 형태부가 의미부 범주에 결합되거나 생략되었음을 알게 해준다. 결국 통신언어는 의미를 강화시키고 형식을 약화시킨 언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 나라의 문화적인 차이는 인터넷 통신 언어양상에도 차이점을 주고 있다. 인터넷 통신언어가 점차 차이를 보이는 것이나, 숫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축사(縮寫) 및 전의(轉意) 등이 대표적인 예다.

본 연구의 결론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인류교류방식의 거대한 변화로 인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하여 자기의 심정, 느낌, 표정 등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인터넷 기술이 가져온 편리함과 기쁨을 만끽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네티즌 중 특별히 청소년 누리꾼들은 이미 인터넷이 없는 나날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해 상상조차도 못할 정도이며, 인터넷은 이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일상생활에서의 인터넷사용은 이미 TV시청, 라디오듣기, 신문읽기 등의 간단한 범주를 훨씬 초월하였으며, 오늘날 네티즌들은 인터넷을 정보취득, 타인과의 교류, 자신의 취미의 일종 방식, 일의 수요, 생활의 중요 구성부분으로 삼고 있다.

인터넷 통신언어는 점점 더 많은 네티즌들의 인터넷상 교류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미국 인터넷회사가 2008년 3월에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15세 이상의 인구 중 6억9426만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며 이는 세계총인구의 14%라고 한다. 인터넷사용총인구 수가 10위에 드는 나라 중 미국이 여전히 선두를 차지했으며, 2위로 중국 7472만 명, 3위로 일본 5201만 명, 4위로 독일 3181만 명, 5위로 영국 3019만 명이며 한국은 6위로 2464만 명이었다. 동시에 공포한 것 중 각국 월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 랭킹 순위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이 57.5시간으로 1순위, 핀란드가 49.3시간으로 2순위, 한국이 47.2시간으로 3순위를 기록하였다. 위의 수치를 분석하면, 인구가 4000여만 명밖에 안 되는 한국이 네티즌 수나 월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모두에 있어서 세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가히 인터넷 강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08년 3월 RI Korea와 Korea Click가 특별히 7세부터 65세 사이의 사람 5000명에 대하여 공동으로 실시한 사회조사 결

과, 74.1%의 사람이 일상생활 중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인터넷 기술이 한국에서 급속히 발전되고 보급되었음을 어렵잖게 알 수 있다. 한국과 비교해 볼 때, 중국 네티즌 총인구수는 많다. 그러나 인터넷 보급과 인터넷 기술의 개발과 응용은 인터넷 강국과 비교할 때 아직 뒤떨어졌다.

인터넷 접속인구가 신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통신언어는 불가항력적으로 형성되고 인터넷을 통하여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다. 인터넷 통신언어의 유행(興起)으로 말미암아 점점 많은 네티즌의 교제의 중요도구로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역사를 보면, 인류의 매 한 종류의 신문화의 유행(興起)은 모두 새로운 단어의 출현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인터넷 통신언어처럼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빨리 발전하는 것은 정말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하며, “하루 저녁의 봄바람이 불어옴으로써 수천수만의 배꽃이 피는”것 같은 기세이다. 지금, 인터넷 통신언어는 이미 인터넷 왕래의 도구가 되었으며, 인터넷의 범주를 지나서 사회현상과 문화현상으로 되었다.

비록 인터넷 세계의 한마디 유행어처럼 “인터넷에 들어가면 인터넷의 풍습을 따르라”는 말이 있지만, 이렇게 빠르고 유행에 민감한 가상공간에서 국가의 그림자는 희미하게 남아있고, 인터넷 통신언어는 천차만별하여 가상공간에서 세계 일주를 하는 네티즌 간에도 거대한 소통문제가 남아있다. 그 나라 언어(모국어)를 쓰는 사람일지라도, 만약 당신이 고수가 아니고 초보라면 끊임없이 나타나고 개성이 뚜렷한 인터넷통신언어를 읽어서 알기 어려울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인터넷 통신언어의 특징을 소개 하면 아래와 같다.

1) 문화격차가 인터넷 통신언어의 차이를 점점 뚜렷해지게 함.

요즘 중국에서 “한류”가 맹위를 떨치고, “대장금”이 인기가 많다고 할지라도, 또한 “중국어열기”가 한국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양국문화교류가 많아질지라도 한중양국의 네티즌의 소통은 여전히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인터넷 통신언어의 차이는 한중양국 네티즌들로 하여금 한자문화국민의 우세를 잃었다. 중국어에 정통한 한국인 혹은 한국어에 정통한 중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그가 상대방의 인터넷 통신언어를 모르면 그 뜻을 알기 어렵다.

부호는 인터넷 통신언어의 새로운 형식이 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조사에 의하면, 면부(面部)상형부호의 창시인은 Carnegie Mellon 대학의 대학생 Scott Pellman이다. 그는 1982년에 그의 전자우편에서 “:-”를 사용하였다. 옥스포드 영문사전에도 2001년에 정식으로 “:-), :-O, :-Q” 등 부호를 수록하였다. 면부형상부호 중 지금 중국, 미국, 그리고 유럽국가의 인터넷 통신언어 중에서 사용률이 제일 높은 것은 측시(側視)부호인데, 한국과 일본의 네티즌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상형부호는 정시(正視)부호이다.

예를 들면, 보통 웃는 얼굴을 표현하는 부호 중에서 중국에서는 -), :), :^)로 표시되고 한국에서는 ^_^, ^^, ^.^로 표시된다. 성냄을 표현하는 부호 중에서 중국은 ;-(로 표시되고 한국은--^, --+, -_-^로 표시가 된다. 술 취함을 표현하는 부호는 중국은 %-(- 이고 한국은 @_@ 이다. 싸움을 표현하는 부호는 중국은 (:#(이고 한국은 (-.#), (#.=)이다.

무엇 때문에 양국이 이처럼 큰 차이를 보였을까? 첫 번째 원인은 선입위주(先入爲主)의 서방 측시부호의 영향이다. 두 번째 원인은 한국 자판에 표시된 “^” 부호 버튼이 사용하기에 더 편리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자판에도 비록 “^”이 있지만, 중국어입력상태에서 “^” 을 누르면 “.....”표시가 나

온다. 중국어입력을 영문으로 바꾸거나 아예 영어입력상태 하에서 “^”를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빠름을 추구하는 인터넷 문화 중에서 자판입력기의 전환수의 증가는 불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소통속도의 저하를 일으킨다. 세 번째 원인은 한자는 표의(表意)문자이고 한국어는 병음문자이기에 한국어는 입력하는데 우세가 있지만 중국어는 글자모형이 정방형이기 때문에 입력하기가 어렵다.

2)인터넷 통신언어는 숫자에게 새로운 단어 의미를 부여함.

어떠한 나라의 네티즌에게도, 아라비아숫자는 본래의 인가(認可)를 넘어서서 새로운 인터넷 통신언어형식이 되었다. 중국에서 숫자입력은 한자입력보다 간단하고 쉽다. 아라비아숫자를 통하여 중국어의 해음(諧音)으로 단어를 뜻을 표현하는 것도 인터넷 통신언어의 응용이 비교적 많은 원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국 네티즌이 이런 표현방식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터넷 소통의 시대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방식이 더 확대되고 발전되었다. 이것은 중국 네티즌뿐만 아니라 한국 네티즌도 예외가 아니다. 그저 한국 네티즌의 최초의 숫자언어사용 중에서 비교적 규범적이었다. 그러나 숫자언어의 표현방식이 사실은 상당히 제한을 받아서, 지금 한국 네티즌들은 비 해음(非諧音) 혹은 암호의 방식으로 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1004”는 “천사”를 대표하며 “7942”는 “친구사이”의 의미이다. 중국의 “8787”은 “돈을 벌다”는 의미, “8858”은 “안아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중국의 숫자언어 중 “2010000”은 “당신을 만년 사랑해”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비교적 독특한 표현의 비유는 많지 않다. 한국에서 이러한 여러 자기 수의 숫자언어는 읽을 때, 종종 분리해서 읽는다. 예를 들어서 “10288”은 응당 “10-2-88”로 읽어야 하고,

“1010235”는 “10-10-2-35”로 읽어야 한다. “10288”의 의미는 “열이 팔팔”,의미는 “열열이 사모” 한다는 뜻이다.

한중 인터넷 숫자언어에도 비슷한 형식이 있다. 숫자+발음, 문자+숫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중국 인터넷 숫자언어 중에서 “4a4a”의 뜻은 “맞다, 맞다”의 의미, “好8”은 “좋아”의 뜻이다. 그러나 한국의 “4040”은 “사랑”의 의미이다. 그 외에도 한중양국에는 또 공동으로 숙지된 번호가 있는데, “007”은 “비밀”, “119”는 “긴급”의 의미이다. 그러나 한국에는 특별한 표현 전달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 “02-86-01”은 또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02”는 “서울”, “86”은 86년도 출생한 사람을, 마지막 “01”은 남성을 가리킨다. 이것은 인터넷에서 친구를 사귄 때 비교적 잘 사용되며, 채팅방의 이름으로 자주 사용된다.

3) 각종 형식의 축사(縮寫), 전의(轉意)가 인터넷 통신언어의 차이를 키움.

인터넷 통신언어 중 대량으로 사용되는 축사(縮寫)는 간편성과 경제성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개성화와 동질감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중 양국언어문자가 같지 않으므로 축사(縮寫)의 방식에도 비교적 뚜렷한 차이가 있다. 중국의 인터넷 통신언어 축사(縮寫)방식은 대체로 세 종류로 나누는데, 영어축사(縮寫),병음축사(縮寫)그리고 한자와 숫자, 병음, 영어의 결합이다. 그러나 한국은 표음(表音)문자이기에 축사(縮寫)의 형식에서 연음(連音)법, 합성법, 생략법, 보음(補音) 대체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중국 인터넷 통신언어의 축사(縮寫)중 영어축사에는 CU(See You), 병음축사에는 BC(바보),MM(미녀),조합에는“ I 服了U”(내가 당신에게 졌다) 등등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인터넷 통신언어축사 중 연음축사에서

사용하는 것은 “많다”, “때문에”, “요일”, “서울” 등이 있고, 합성축사의 단어 조합에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정기집회 등이 있다. 생략법은 3,4음절의 단어를 2음절로 만들고, 보음(補音)대체법의 원칙은 자주 사용하는 의성어를 하나의 보음(補音)글쇠로 표시한다.

인터넷의 신속한 발전에 따라 네티즌들은 대량의 신조어를 창조하였다. 사자성어나 고정적인 단어는 원래의 의미가 변경되었는데, 이 점에서는 한중양국네티즌이 매우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중국의 네티즌은 여화사옥(如花似玉, 꽃처럼 아름답고 옥처럼 매끄럽다)을 “추악하다”로, “기차기사”는 “불륜을 저지르지 못하는 사람”으로 의미변경 시켰다. 한국에서는 “천재”를 “천하에서 제일 재수 없는 사람”으로, “현모양처”를 “전혀 발전이 없는 가정부”로 의미변경 하였다.

이상의 여러 방면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볼 때, 지금의 한중 인터넷 통신언어는 이미 비교적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한중양국사이의 비교이지만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설령 이웃 나라이고 비슷한 전통문화배경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인터넷 시대에서 양국 네티즌이 인터넷 통신언어 소통 방면에 이미 비교적 큰 차이를 형성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미 비교적 큰 소통 장애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전세계범위 내 인터넷 통신언어의 유행 응용장애는 새로운 문화현상이 될 것이며 더 광범하고 심층적인 관심을 끌게 될 것임을 미리 짐작할 수 있다. 한중 인터넷 통신언어 분석에 대해 논하면서 인터넷 통신언어에 대한 많은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모든 사물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통신언어도 마찬가지이다. 일면적으로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새로운 어휘에 대한 규범화 문제에 관해서는 줄곧 여러 가지 관점이 존재해 왔다. 중국 언어학 전문가 우근원(于根元)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만약 어휘계통에 원래의 단어만 있

어 영원히 평이하게 발전한다면 언어는 그 생명력을 잃게 된다. 언어가 발전하고 있으며 언어에 대한 규범화도 필요하다. 그러나 규범화는 발전을 추동해야 하며 발전을 제약하는 것은 규범화가 아니다.” 단어의 발전과 단어의 규범화는 변증법적으로 통일된다. 언어는 사회적인 규범을 수용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이 언어를 사용할 때 규범화 원칙에 부합되어야 하면서도 또한 불규칙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규범화와 발전은 서로 통일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언어문자는 사회 속에서 유통되는 정보매체로서 인류가 사회교제를 진행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언어문자에 대한 사용은 개인적인 행위와 사회적인 행위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으며 상대적인 온정성과 영원한 변화성이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통신언어에 대해서는 우선 적극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며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적당히 규범적인 체제를 가하며 국가 유관 부문과 각 사이트에서 적당한 관리조치를 취하여 통신언어가 정상적으로 발전하도록 규범화하여, 일부 몰상식한 언어현상에 대해서는 제 때에 제지시켜야 한다. 또한 특수한 언어표현방식에 대하여 관찰, 분석, 탐구하여 건강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이로운 것과 불건강하고 소극적이며 해로운 것을 분명하게 갈라놓고 전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통신언어에 대한 발전은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동시에 정확하게 인도하여야만 통신언어가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한국문헌

<단행본>

세버린.-tankard 공저 박천일.강형철.안민호 공역(2004). 『커뮤니케이션이론』 제17장.

이정복(2003). 『인터넷 통신언어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월인.

양명희 박호관 이정복(2006). 『인터넷 통신 언어와 청소년 언어문화』. 한국문화사.

인터넷 용어 사전 연구회(2005). 『최신 인터넷 용어 사전』. 서울: 교학사.

최기호 김미형 임소영(2004). 『언어의 사회』. 서울: 한국문화사.

박종한(2004). 『한국어에서 중국어 바라보기』. 서울: 학고방.

김경동 이온죽(2005). 『사회조사연구방법』. 서울: 박영사.

정진수(2005). 『컴퓨터 통신언어 연구』. 서울: 도서출판 역락.

태평무(1999). 『사회언어학 연구』.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최영애(2003). 『중국어란 무엇인가』. 서울: 통나무.

남기섬(2000). 『새말의 탄생』. 교육부.

김성도 지음(2008). 『호모 모빌리쿠스』. 삼성경제 연구소.

<연구논문>

기현주(1995). 『컴퓨터통신의 매체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34권.

- 이동우(1998). 『채팅언어의 특성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규홍(2000). 『컴퓨터 통신언어에 대하여』.
- 전병철(2000). 『채팅언어에 대해 연구』.
- 한인숙(2002). 『인터넷 통신언어에 대해 고찰』.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경하(2002). 『통신언어 사용에 대해 한일 비교연구』. 중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민(2003). 『통신언어 국어학적 연구-게시판 언어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김현정(2004). 『통신언어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아(2005). 『중국 인터넷 통신언어의 사회언어학적 고찰』.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박영환(2006). 『통신언어의 음운론적 고찰』.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신문기사>

- 국민일보(1999.9.19) '스타크는 청소년들 공통언어'.
- 국민일보(2000.10.9) '인터넷 언어오염'.
- 대한매일(2001.7.12) '오염된 통신언어'.
- 스포츠서울(1999.9.27) 'pc통신언어.인터넷 대화방 은어'.
- 소년한국일보(2000.8.16) '사이버 공간에서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자'.
- 중앙일보 '통신언어에 대해' 2007년 5월刊.

* 중국문헌

< 단행본 >

- 陳松岑(2003). 『言變異研究』. 廣東教育出版社.
- 于根元(2005). 『中國網絡語言詞典』. 中國經濟出版社.
- 戴昭銘(2003). 『規範語言學探索』. 春風文藝出版社.
- 陳原(2008). 『社會語言學方法論四講』. 上海出版社.
- 鮑宗豪(2008). 『網絡与当代社會文化』. 文摘.
- 郭熙(1999). 『中國社會語言學』. 南京大學出版社.
- 于根元(2001). 『網絡語言概說』. 中國經濟出版社.
- 周明强(2005). 『現代漢語實用語言學』. 浙江大學出版社.
- 周洪波(2001). 『中國網絡語言辭典』. 中國經濟出版社.
- 陳建民(2001). 『中國語言和中國社會』. 廣東教育出版社.
- 陳元(2000). 『社會語言學』. 北京 商務引書館.
- 鮑宗豪(2003). 『網絡文化概論』. 上海人民出版社.

< 보도자료 >

- CNNIC(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에서 2006 년 1 월에 발표한
- 勁松, 麒可(2000). 『網絡語言是什麼語言』 語文建設 第十一期
- 邝霞(2000). 『網路語言是一種新的社會語言』 電腦語文 第八期
- 武麗梅(2003). 『網絡語言中的字母詞的構詞特點分析』 廣州大學學報 第一期

劉緒義 錢宗武(2005).『网络語言 現代与后代的區別』 徐州師範大學學報 第三期

何洪峰(2003).『從符号系統的角度看 网络語言』 江漢大學學報 第二期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 통신언어－dinosaur or beautiful girl ?』 www.sina.com 의 調査

<http://myhome.naver.com/soos2001/menu1.html>

<http://specia.hompy.com/>.

<http://test.cjmbc.co.kr/cjmbcrest/list.asp?page=58>.

<http://www.idoo.net/campaign/index.php>.

<http://hi.baidu.com/vegaking/blog/item/056440a95778b0fc1e17a2e5.html>

http://cafe.naver.com/greenm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464